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MAY 9 1983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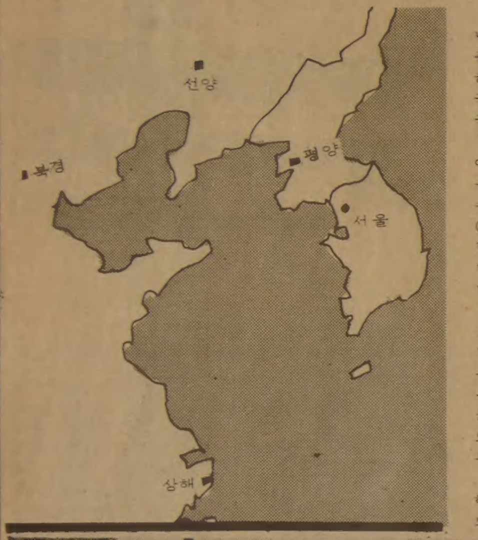
한국일보 토론토

No.1126~1127 1983년 5월6일(금) & 7일(토) |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 Friday & Saturday, May 6 & 7,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피납 중공여객기 한국착륙

승무원2명 총격상, 승객100명 춘천에 수용



(서울5일=연합)공중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중공민간여객기가 5일 하오 휴전선을 넘어 한국영토에 착륙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박종식 국방부대변인에 따르면 5명의 승무원을 포함, 105명을 태운 중공여객기가 1시57분(현지시간)경 휴전선을 넘어오는 것을 순찰중이던 한국공군기가 포착했다.

한국공군기가 접근하자 중공여객기 조종사는 날개를 흔들며 항복신호를 보냈으며, 이어 한국공군기의 엄호를 받고 하오2시10분께 중부전선의 00기지에 무사히 착륙했다.

박대변인은 이 중공비행기 승객들은 당국에 의해 보호를 받고있으며,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박대변인은 추가 발표를 통해 "비행중 총격을 받고 부상중인 승무원중 2명은 공군기지에 착륙하자마자 입원조치 되었다"고 밝혔다.

이 여객기는 이날아침 선양을 떠나 상해로 향하는 중이였다. 승객중 3명은 일본인이였고, 나머지는 모두 중국인이였다.

한편 모처럼 어린이날 공휴일을 맞은 시민들은 갑자기 발동된 공습경보에 의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당시 전국전역에 적공습에 대한 경계태세가 발동되었다.

한편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정부관리는 승무원중 2명이 비행도중 총격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공중납치같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국제「Bae-Trident」인 이 여객기는 선양을 떠나 상해로 가는 도중 기내에서 총격이 가해진 즉시 북한으로 항로를 바꾸거 되었다고 밝혔다.

부상자를 제외한 승객전원은 춘천시내 각 호텔로 이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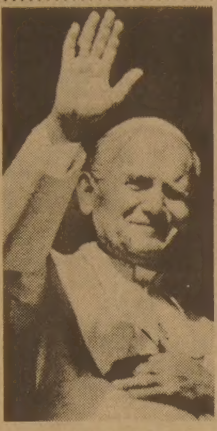
과거에 중공전투기가 한국에 착륙한 것은 두차례나 있었으나, 중공민간항공기가 남한에 착륙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중씨회견

워싱턴대학강연 앞서

(시애틀=UPI)김대중씨는 30일 시애틀의 워싱턴대학강연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한국민 대다수의 편에 서줄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어 한국인들은 언론, 노조, 학원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한국의 현정권이 공산주의를 막는 보루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원, 결국 한국민들의 반미감정을 팽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한·바오로2세

내년9월 캐나다 방문

요한·바오로2세

요한·바오로 2세는 교황으로는 사상처음으로 84년 9월9일부터 19일까지 토론토등 캐나다전국을 순회방문할 계획이라고 카톨릭교황청이 4일 발표했다.

교황은 최소3일간 온타리오에서, 나머지 시간은 대서양연안주와 퀘백및 서부주에서 보낼것으로 보이나, 공식방문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교황은 캐나다에서의 원주민과의 면담, 낚시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한·바오로2세는 69년과 76년 주교의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했다.

교황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오타와, 토론토, 캘거리, 에드몬톤, 위니펙, 옐로나이프, 뱅쿠버, 몬트리얼, 퀘백시티, 할리팩스, 세인트·존스, 미들랜드의 순교자 성지등이다.

◆캘리포니아주 콜링가시에서 일어난 6.5도 강도의 지진으로 시 주택의 30%가 완전파괴되고, 아이들을 찾아 헤매는 여인들의 울부짖음속에 시는 한때 수라장이 되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 지진은 30초동안 계속되었으며, 이때 땅이 4피트 정도 지면에서 튀어올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0년만의 대지진으로 기록된다. 사진은 이번 지진으로 날아오는 벽돌에 눌려 자동차1대가 완전 파손된 모습.

"연방당수 출마안한다"

데이비스「온」주수상 선언

윌리엄·데이비스 온타리오주 수상(53)은 4일 자신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온타리오주수상으로서 봉직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연방보수당 당수에 출마하리라는 3개월동안의 끈질긴 소문에 종지부를 찍었다.

6일까지 출마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데이비스수상은 퀸즈파 수상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나의 정치신조중의 하나는 단결이다. 6월 전당대회에서 압도적당선이 되지 못하거나해서 당을 분열시킬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비스수상의 불출마 결정에 가장 큰 안도의 숨을 쉰 당수후보는 조·클락후보로 그는 데이비스가 출마할경우 온타리오주에 뿌렸던 선거자금을 거의 잃을뻔했던 후보였고, 가장 실망한 후보는 브라이언·멀로니. 2위를 달리고 있는 그는 데이비스가 클락의 표를 분산시킴으로써 보다 유리한 입장에 놓일것으로 기대했다.

데이비스수상은 자신은 무엇보다 당의 단합에 관심이 크며, 6월의 오타와 전당대회에는 단지 1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社 告

위니펙지국장에 배영규씨

위니펙지국장에 배영규(한인회 총무)씨가 임명되었읍니다. 배지국장은 본 토론토한국일보사의 대표로서 기사취재, 광고및 구독관계일을 맡아서 수고하십니다.

지역 교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국주소 :
Mr. Young Q. Bae
2013 Pembina HWY
Winnipeg, Manitoba,
R3T 2G7
Phone ;
(B)269-9841, 5337
(R)269-7576

◆배영규지국장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 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현영일
카나다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ng I. Hyun C.A.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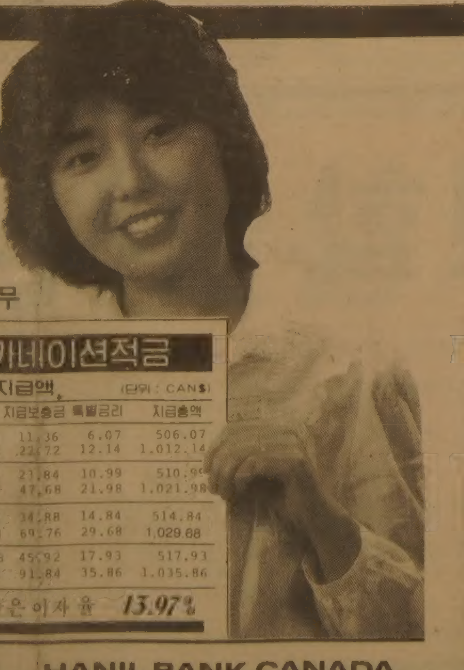
은하 보석
ROLEX
란콤화장품 대리점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면허소지업체
오메가시계 45% ~ 50% OFF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개혁자 제2호

토론토개혁장로교회 발간

「개혁자의 비전」 이시대의 표적들
「개혁자강설」 예수그리스도 우리주님(2)
「로마교회의 비진리성」 알버토 스토리
「교회의 무능과 타락」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
「신앙의 기본도리」 기도란 무엇인가(1)
「인간종교」 자유주의신학-그 이단성(2)
「개혁신앙의 강령들」 도르트의 신조(1)
「성서번역판들의 문제점」 성경의 역사
「배교의 교회연합운동」 생사를 건 싸움 빌리 그라함의 전향
*별책부록 「알버토」

*토론토 각 한국식품점들, 종교서관에서 무료로 배부중!
*정기구독신청(무료)을 위한 주소와 전화는,
주소 : Toronto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P.O.Box 2603, Station "F"
Argincourt,, Ontario, Canada,
전화 : (416)492-9889, (416)498-0241,
(416)221-7500

빠르고 편리하게
하나+둘+셋
노력과 땀으로 이뤄논 결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증식시킬수 있을까?
●정기예금및 적금 ●대출업무

한일은행 카네이션적금
정기적금의 월부금과 지급액. (단위 : CAN$)

기간	계약액	월부금	납입총액	지급보충금	특별금리	지급총액
6개월	500	81.44	488.64	11.36	6.07	506.07
	1,000	162.88	977.28	22.72	12.14	1,012.14
1 년	500	39.68	476.16	23.84	10.99	510.99
	1,000	79.36	952.32	47.68	21.98	1,021.98
1년반	500	25.84	465.12	34.88	14.84	514.84
	1,000	51.68	930.24	69.76	29.68	1,029.68
2 년	500	18.92	454.08	45.92	17.93	517.93
	1,000	37.84	908.16	91.84	35.86	1,035.86

500불 이상은 500불을 기준으로 한 배수임.
높은이자율 13.97%

카나다 韓一銀行 토론토지점
HANIL BANK CANADA
●Toronto Main Branch P.O Box 262 6960 1 Canadian Place Toronto M5X 1C9 (416) 865-0456
●Vancouver Head Office 2674 Four Bentall Centre 1055 Dunsmuir St. Vancouver. (604) 681-2266

교역자청빙

본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역자를 청빙코자 합니다.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1매
(영문및 한글)
사진1매(반명함판)
●기 일 : 1983년5월20일까지
●보내실곳 : 18 Creighton Dr.
Dundas, Ont.
L9H 3P7
최태호 장로

해밀톤 한인연합교회
교역자 청빙위원회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태권도시범대회 성황

후렌시스하원의장등 1,000여관중 참관

(오타와) 한국의 고유한 태권도의 유수성을 소개하는 시범대회가 29일 오후 7시부터 시내 R.A.센터(연방정부 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오타와 태권도학교(관장 : 이태은)주관으로 열린 이날밤 시범에는 승단시범자 15명, 어린이를 포함한 30여명의 선수가 출연, 어린이자기방어(Self-Defence), 여성자기방어, 공중격파, 장애물격파등을 선보였으며 특히 체조를 겸한 자기방어시범과 노인들의 지팡이를 이용한 자기방어등을 시범해 1,000여 관중을 매료시켰다.

이 행사에는 특별히 이규현대사부부, 공관직원, 하원의장 로이드·후랜시스부부, 레이레브랑 연방경찰기동타격대장부부, 훼어베언 법무차관부부, 보수당복합문화담당인 미쉘·라마루씨부부등의 내외귀빈이 참관, 격려를 보냈다.

이날밤 행사는 CBC 네트워크를 통해 밤11시 뉴스와 2일저녁 7시뉴스를 통해 전국에 방영되었고 CBC는 앞으로 1시간짜리 태권도특집을 마련, 곧 방영할 예정이다.

시범행사가 끝난 후 가진 리셉션에서 후랜시스하원의장은 태권도의 우수성에 찬사를 보내고 태권도보급을 위한 그랜트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레브랑 기동타격대장도 RCMP(연방경찰)내의 태권도보급에 앞장설 것임을 피력했다.

웰페어혜택자감소

경기청신호

메트로·토론토내의 웰페어(Welfare)에 의존하는 사람의 수가 1년내 처음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경제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3월중 55,479명이였던 메트로내의 웰페어 해당자수는 지난달에는 54,933명으로 약 500명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1년동안 웰페어해당자가 매달 1,200명씩 증가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감소는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메트로·사회봉사·커미셔너인 레이·톰린슨씨가 말했다.

근친상간 피해 증가

－토론토 어린이가학조사위원회 보고－

최근 메트로토론토 어린이가학조사위원회는 캐나다내에 음성적인 근친상간(Incest)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동위원회의 토나·그랜트회장은 토론토내 어린이중 평균 10명당 1명꼴로 성적 피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부분 이들의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다고 밝혔다.

온타리오 가족봉사기관의 연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작년도 메트로지역에 약 3,000건의 피해자가 생겼으나 주내 담당기관에는 75건밖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애완취급의 피롭힘, 성적희롱, 심지어는 성교에까지 다양하다.

한편 피해신고가 되어도 경범으로 취급되었으며 대부분 심리치료의 명령 정도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근친상간이 자녀들의 가출과 마약복용, 윤락행위의 큰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필(Peel) 가정봉사회의 상담치료사인 마라게이트·보그씨는 결혼및 가정상담중에 40%이상의 여성상담자들이 성적희롱을 당했음을 고백했다고 말하고 봉사회에서는 근친상간 피해자를 위한 20주간의 코스를 구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피해자들은 그룹치료기간 동안 그들의 경험을 말하기를 꺼려하며 생각하기조차 싫어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유아교육중요성 대두"

CCC의 한국인 Toddler교사 표정애씨

토론토보육대학에서 아동교육을 전공한 한 교포가 크리스찬·코뮤니티·센터(CCC)에서 1.5세에서 2.5세의 어린이를 가르치는 토들러(Toddler)코스 교사로 금년부터 활약하고 있다.

270 Gerrad St. E에 위치한 CCC는 각 교회 지원으로 운영되는 초교파 비영리단체로 전통있는 유아교육외에 성인, 여성클럽, 노인클럽등 각 연령층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일반 데이·케어(day-care)가 입학을 앞둔 어린이(Preschoolers)들의 교육만을 치중하는데 비해, CCC는 토들러코스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토론토내에서 토들러코스가 있는 곳은 2-3개 사립학교가 있을 뿐이다.

유아 4명에 1명의 교사가 배치되는 CCC의 토들러코스에는 모두 6명의 특수교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1명이 교민 표정애(27)씨이고, 나머지는 캐네디언이다.

표씨는 초기유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 CCC 토들러코스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부모는 대부분이 학력이 높고, 기독교가정이 많다고 설명했다.

표씨는 이어 CCC는 다른 데이·케어와 달리 시설이 아주 우수하며, 분위기가 매우 가정이라면서, 한국교민들이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CCC 토들러반의 정원은 12명이며, 현재 2살4개월된 이한나어린이등 8명이 교육을 받고있다고 표씨는 전했다.

◆ 표정애씨

수업시간은 오전7시30분부터 6시까지이며, 수업료는 주당 80달러이다.

기타 상세한 문의는 929-9614이다.

Christian Community Centre, 270 Gerrard St., E.

◆토들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CCC의 외부전경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藥의 사나이

<227>

헤로인 ㉒

김형사는 배낭을 멘 노인을 불러세웠다

사내도 이쪽을 보면서 걸어오고 있었다。큰 키에 걸음걸이가 곱시 빨라 보였다。머리에 빨간 털모자를 쓰고있었고 위에 입은 파커도 빨간 색이었다。등에는 배낭을 지고 있었다。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털모자 밑으로 삐져나온 머리카락이 온통 잿빛이었다。털을 덮고 있는 털도 잿빛이었다。얼굴은 검은빛이었고 눈빛은 따뜻해보였다。

『할아버지、안녕하십니까?』

김형사는 걸음을 멈추고 서서 노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슈。』

노인도 걸음을 멈추었다。

『실례지만 이마을에 사십니까?』

『아니요。난 읍에 있소이다。』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등산 갔다오십니까?』

『아니요。절에 좀 다녀오는 길이요。』

『등산 차림이시기에 산에 갔다 오시는줄 알았지요。』

『겨울에는 이런 차림으로 돌아다니는게 좋지요。산에 안 가더라도……。』

『하긴 그렇지요。』

김형사는 아래로 시선을 떨어뜨렸다。노인이 신고있는 농구화가 새것이었다。그는 장갑을 끼고있지않은 왼손을 보았다。노인 치고는 손이 유난히도 곱고 섬세하게 생겼다。

『저기 혹시…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읍니까?』

『이야기 해보시유。바쁘지는 않으니까。』

노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중국인 왕씨하고 살던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중국인 왕씨?』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네、옛날 얘깁니다만…지금은 그 할머니가 혼자서 살고있다고 들었는데…。』

『글쎄요。잘 모르겠는데…。이마을에 살고 있는가요?』

『글쎄、그걸 모릅니다。단지 이 지방에 살고있단는 말만듣고 이렇게 수소문하고 다니는거지요。』

『이 마을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알고있는데…그런 할머니가 계신다는 말은 듣지못했읍니다。』

노인은 목례한 다음 걸어가기 시작했다。

『실례 많았읍니다。』

김형사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시골 노인 치고는 언행이 세련되고 사투리가 전혀 없었다。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때는 노인은 이미 수십미터 저쪽에 있었다。그는 급히 노인을 따라갔다。

『할아버지、잠깐 저좀보시죠。』

노인은 돌아서서 의아한듯 그를 바라보았다。

김형사는 괜히 그랬는가싶어 조심스러워졌다。그러나 내친 김이라 말을 꺼냈다。

『경찰입니다。』

『아、그래요。』

노인은 김형사가 꺼내보이는 신분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배낭속에는 뭐가 들어있읍니까?』

『뭐 별것 아닙니다。』

朴 男 그림

'토론토주민 농장동물 기를 수 없다'

－시의회 동물규제법 통과－

토론토주민들은 닭, 염소, 소, 말등 농장동물들을 집뒷뜰에 기를수 없게 되었다.

토론토시의회는 2일 전염병예방을 이유로 동물규제법을 제정, 14대8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최종확정되면 유태인시장인 켄싱턴·마켓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닭등 동물매매도 금지된다.

시보건부 식품위생과 과장 윌리엄·코너리씨는 검사를 거치지 않은 식용가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은 보건위생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생에 문제있다는 주장에도 불구, 이날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3시간동안 열띤 논쟁이 벌어진 것은 특히 에트닉주민이 많은 다운타운과 서쪽토론토지역 시의원들이 선거구에서 인기를 잃을까 두려워 했기 때문이었다.

재산세 보조금 우송

못받은 노인은 문의요망

온타리오주정부는 지난달 29일자로 65세이상의 남녀 노년들에게 재산세보조금과 물품세보조금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1월~6월)분을 수표로 우송했다.

재산세보조금은 주로 집세등으로 1년에 1세대당 최고 500달러까지 지급한다. 예를 들면 1년에 집세가 2,500달러인 경우는 20%에 해당하는 500달러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져 지급된다.

물품세 보조금은 1년에 1인당 50달러이다. 해당자로서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은 여권과 영주권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77 Bloor St. West 건물의 10층 사무실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노년회(755-8079)로 하면된다.

교 민 동 정

◆박영효(전 위니펙한인회장)=오래동안 한인회장으로 봉사, 위니펙한인사회의 기둥역할을 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박씨는, 지난 1월21일자로 한국해외개발공사(인력수출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마니토바지역 자문위원(Area Consultant)으로 임명됐다. 박위원이 하는 일은 인력수급에 관한 정보수집, 홍보, 고용주와의 접촉, 한국인근무의 보호등이다. 마니토바대학서 식품공학을 공부했던(MS학위) 박사장은, 위니펙에서 대형 수퍼마켓을 경영하는 실업인으로 지난 4월초에는 해외유공실업인으로 선정되어 한국정부의 표창을 받았다.

바이올리니스트 홍은화

스카보로·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연

토론토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망주 교민 바이올리니스트 홍은화(17·Grace Hong)양이 오는 14일(토) 하오8시 스카보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협주곡 E장조를 연주한다.

연주장소는 맬번·코뮤니티·리크리에이션·센터(Malvern Community Recreation Center, 주소는 30 Sewells Rd. Scaborough,)이며, 입장은 무료이다.

홍승규씨의 딸인 은화양은 7세부터 바이올린을 시작, 현재 로열·콘서버토리에서 빅터·단체코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키와니스대회, 캐네디언·내셔널·익시버션(CNE) 대회등에서 입상했다.

은화양은 현재 미시사가의 에린데일·세컨더리·스쿨에 재학중으로 그동안 욕·심포니등과 협연등 수차의 연주경력을 갖고 있다.

◆14일 멘델스존협주곡을 연주할 바이올리니스트 홍은화양

「캐」, 기술장비개발 낙후

군소유럽국가보다 4~5년 뒤떨어져

(오타와)캐나다는 고도의 기술장비개발면에서 경쟁국가들에 크게 뒤지고 있다고 4일 캐나다·사이언스·카운슬(Science Council of Canada)이 보고서에서 밝혔다.

연구원 더크·데·보스씨가 작성한 동 보고서는 심지어 군소 유럽국가들도 캐나다보다 4~5년 앞서있다고 지적하고, 예컨대 프랑스는 앞으로 수년간 통신및 전자부속품 개발에 60억달러를, 서독은 40억달러, 영국은 31억달러를 쓸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3일 연방정부의 경제개발장관 돈·존스톤씨가 밝힌바에 의하면, 오타와는 앞으로 2년간 고도의 기술개발지원에 7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기술지원비로 30억달러를 책정했다.

데·보스연구관은 캐나다는 이 방면에서 미국과 일본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말했다.

오르간연주회

9일, 김혜진양

오르가니스트 김혜진(20)양이 오는 9일(월) 재학중인 로열·캐네디언·칼리지·오브·오르가니스트 주최로 연주회를 갖는다.

장소는 에글링턴 연합교회(Eglinton United Church), 주소는 65 Sheldrake Blvd.이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오르갠 전문학교에 재학중인 김양의 이번 연주회는 이 학교가 마련하는 영·아티스트·리싸이틀의 일환이다.

토론토·멘델스존 합창단

83/84시즌 정기가족권판매

8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토론토·멘델스존합창단(Toronto Mendelssohn Choir)의 83,84시즌 정기가족권 판매가 이미 실시되고 있다.

오는 11월5일 하이든의 Theresienmesse(B 플랫미사곡)연주를 서두로 동시즌을 오픈하는 토론토·멘델스존 합창단은 토론토심포니(Toronto Symphony)와 더불어 토론토가 자랑하는 연주단체로 로이·톰슨·홀을 정기연주장소로 사용하며 현재 지휘자는 엘머·이셀러(Elmer Iseler)씨이다.

이번 시즌의 주요 공연곡목으로는 헨델의 메시야, 베토벤의 장엄미사곡(Missa Solemnis), 드보작의 Stabat Mater등이며 토론토·심포니와 협연한다.

곧 단원모집을 가질 예정인 멘델스존합창단의 문의처는 전화 : 598-0422이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박인순씨등 재판

18일상오로 연기

전 토론토한인회장 박인순씨 부부와, 최성태씨등의 "외국인 미국불법 반출혐의"사건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지난4일에 있은 재판에서 출두한 이들은 재판정으로 부터 재판일이 오는 18일 상오로 연기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인연합상사 춘계대매출

Kraft Macaroni & Cheese	$22.15	Bacon 250 grams	$ 1.48
Mayonnaise	$16.35	500 grams	$ 2.25
B.B.Q Sauce (all flavors)	$13.19	Glad Garbage Bags	$33.33
Parmesan Cheese	$31.70	Delsey Toilet Tissue	$19.59
Jets Mellow White	$13.45	Sunbright Detergent	$23.60
Maple Leaf Popular Slice (Bologna, Mock Chicken, Luncheon Meat)	$ .75	Leaf Jumbo Freezer	$ 7.49
		Sunpacked Juice	$ 7.89
Cooked Ham	$ 1.39	Canada Dry	$ 5.99
Weiners	$ 1.09	Old South Orange (12 oz.)	$23.69

와 보시면 금방 느끼실 수 있읍니다.

주식회사 한인연합상사 United Konadian LTD.
U.K.L. CASH & CARRY
27 RANGEMORE RD. TORONTO Phone: 251-6578·251-6579
대표: 김현모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올여름 유혹하는 새映畵

모험·액션·환상·코미디등 히트예상

「볼만한 우수작품」 20편을 소개한다

◆올여름 개봉되는 입체영화 「우주사냥꾼」. 우주공상 스토리다.

영화계의 최대행사인 제55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의 열기가 가라앉기가 무섭게 올여름을 유혹할 새로운 영화들이 일반에 개봉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영화계 대목인 여름시즌은 앞으로 6주, 대부분 영화관계자나 영화팬들은 영화제작자들이 올여름 새로운 영화들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벌써부터 사람들의 입에는 어느 영화가 히트를 칠 것인지 어느 영화사가 「한밑천」 잡을 것인가라는 추측이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올여름에는 모험물, 액션물, 환상물, 코미디물등 30개 주요작품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전례없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시사회때 나타난 관객의 반응으로 보아 특히 틴에이저 관객동원에 성공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회때 관객의 반응을 토대로 톱20위내에 기록된 영화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원제명)

1. 제다이 돌아오다(Return of the Jedi)—우주모험물, 「스타워즈」의 제3편으로 올해 최대관객동원을 목표로 하고있다.
2. 수퍼맨 III—크리스토퍼·리브가 초능력의 수퍼맨으로 돌아오나 리차드·프라이어와 대결하게 된다.
3. 청색천둥(Blue Thunder)—도시를 중심으로 한 드릴물. 로이·슈나이더 주연에 헬리콥터들의 액션이 펼쳐진다.
4. 죠스3편—거대한 백상어가 다시 해안으로 돌아온다.
5. 황혼지대(Twilight Zone)—이 영화를 촬영하다 헬리콥터 추락으로 빅·모로가 사망, 화제에 오른 영화.
6. 네버 세이, 네버 어게인(Never Say Never Again)—007 시리즈의 숀·코네리가 제임스·본드로 돌아온 첩보물.
7. 스테잉어라이브(Staying Alive)—실베스터·스텔론감독으로 「토요일밤의 열기」의 죤·트라볼타가 주연한다.
8. 전쟁놀이(War Games)—젊은 컴퓨터 천재가 펜타곤의 국방컴퓨터 시스템의 플러그를 뺀후 세계 전쟁에 휘말려든다.
9. 크룰(Krull)—2천7백만달러의 제작비를 투입한 동화이야기.
10. 사이코II(Pshyco II)—안소니·퍼킨스와 제네트·리가 출연했던 등골오싹한 드릴러물의 속편.
11. 옥터퍼시(Octopussy)—로저·무어가 주연한 또다른 007시리즈.
12. 포키스: 그다음날(Porky's; The Next Day)—1천만달러의 제작비가 소요됐다.
13. 스트로커 에이스(Stroker Ace)—버트·레이놀즈가 최선을 다한 작품. 애인으로 소문난 로니·앤더슨과 공연했기 때문.
14. 누런 턱수염(Yellowbeard)—피이한 코미디물.
15. 두개의 뇌를 가진 사나이(Man with Two Brains)—흥미진진한 코미디물.
16. 우주사냥꾼(Space Hunter)—피터·스트라우즈, 몰리·링 왈드 주연의 우주공상 입체영화.
17. 쿠조(Cujo)—스티픈·킹의 피기소설을 영화화한 작품.
18. 브레스리스(Breathless)—마치 관객마저 숨을 죽이게 하는 작품으로 리처드·기어와 19세 프랑스 여배우 발레리·카프리스키 주연.
19. 영감(Brain Storm)—지난해 카탈리나섬에서 익사한 여배우 나탈리·웃의 마지막 영화. 덕·트럼벨감독.
20. 사립학교(Private School)—틴에이저들의 섹스를 난폭하게 다룬 작품.

◆나탈리·웃의 마지막 작품 「브레인스톰」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LET'S TAKE A BREAK.

Body shop(차체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포에게 한번은 미국인 동료가 Let's take a break라고 하였다. break란 단어가 들리자 brake(제동기:단어가 다르다)로 잘못 알아듣고 조금전에 브레이크를 고쳤는데 무슨 소리냐고 What's wrong with the brake? 이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때의 break란,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아니고 「잠시의 휴식시간」을 나타내는 말로서 「좀 쉽시다」의 뜻으로 미국인이 말했던 것이다.

「커피마시면서 잠깐쉬자」라고 하는 경우는 Let's take a coffee break.이고 「점심 시간을 갖자」는 Let's take a lunch break. 또한 「그 사람은 지금 커피마시면서 잠깐 쉬고 있다」고 할 때는 He's taking a coffee break.라고 한다.

Give~a break란 「~에게 기회를 주다」라는 숙어로서 예문을 든다면 미국인 supervisor(감독자)가 한국인 종업원에게 Mr. Kim, you're not experienced enough to operate the new machine.(미스터 김, 당신은 그 새 기계를 작동할 만큼 경험이 있는것은 아니오.)하였다고 하자 이때 Please Mr. Johnson, give me a break. I know. I can handle it.(미스터 잔슨, 저에게 기회를 줘보십시요. 제가 그 기계를 자신있게 조작할 수 있읍니다.)이같이 사용된다.

A: How long do you think it will be before we're finished with this car?
B: We've done about half of the things on the list.
A: Then we should be through in about an hour or so.
B: Shall we take a break or continue?
A: Let's take a break. I'm dying for a cold drink.
B: That sounds good.

A:이차를 고치려면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B:고쳐야 될것들을 적은 목록의 절반정도를 끝냈읍니다.
A:그렇다면 한시간 가량이면 끝나겠군요.
B: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할까요?
A:잠깐 쉬었다가 하지요. 시원한 것을 마시고 싶어서 죽겠읍니다.
B:반가운 소리입니다.

※on the list:명부에 기입되어.

이연재물의 필자가쓴 「생활영어」 1, 2, 3, 4권을 구입하려면 B.C Min 7037 Beckwith mort on Grove Ill. U.S.A. 로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 됩니다. 가격은 권당12달러(판매세및 우송료포함) 전화:(312)966-4050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532-7909 540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 「人間市場」
●한국 [illegible] 人脈을 캔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알리는 말씀〉

약1년전 저희 은하보석은 북미 7대 백화점에 이어 역사적으로 시세이도화장품회사로 부터 판매권을 획득, 상품판매계획일로부터 15일전에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바 있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이유로 시세이도 북미본사(뉴욕)로부터 지연통보를 받기 어언 일년만에 드디어 개인사업체로서는 북아메리카에서는 처음으로 최종 승낙을 받아 5월부터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는 오직 교민여러분의 성원만으로 가능했다고 믿으며, 그동안 시세이도 애용여성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은하보석 대표 김용섭
620A BLOOR ST. W. ☎534·9977, 7791

들치기 우글거리는 토론토

연간도난액 1억달러…도난방지장비 고도화

메트로토론토에 산재한 백화점, 드럭스토어(Drug Store), 연쇄상가,

◆시그마 안전장비회사 제품으로 새로 개발된 종이장두께의 특수합금 처리한 고성능 감지태그(Tag).

쇼핑몰의 점포들이 최근 급증하는 들치기들(Shoplifters)에 의한 상품도난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특히 토론토 중심가의 이튼·센터(Eaton Centre)의 경우는 더욱 심해 매년 300만달러 이상의 상품이 도난당하고 있으며, 시내 일원의 각점포의 연간 도난액이 4,500만달러에서 1억달러에 달한다.

한편 시경찰국은 이튼·센터안에다 지서를 설치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

도난의 종류도 가지각색, 좀도둑으로부터 고객을 가장한 바꿔치기, 본격적인 팀을 구성한 소매치기등 다양하다.

이튼·센터안에서 점포를 경영하는 마리카·베그양은 눈깜짝하는 사이 2,300달러짜리 고급 상품을 잃었는데 범인이 걸린 옷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줍는 척하면서 자신을 밀쳐내고도주했다고 설명했다.

다운타운 52지역 경찰서에만도 4월말 현재 약 750건의 도난피해신고가 있었다.

약국의 경우는 82년도에 전매상고의 3%이상에 상당하는 상품을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방범관계자들은 도난상품중 약 80%가 들치기들과 종업원들에 의해 없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업주들은 도난품액수가 순수판매이익의 차액보다 높아 실제로는 헛장사를 하고 있다고 푸념이다.

캐나다 소매자협회의 알라스데어·매키컨씨는 대비책으로,

◉특수안전요원 고용.

◉감시를 위한 특수거울 부착및 특별 감시장비 설치.

◉고가의 상품에 대한 캐비넷 관전장치및 전시.

◉신용할 수 있는 고용원 채용.

◉폐쇄회로를 이용한 특수텔리비젼과 수상기(Monitor) 시스템 설치등을 권장했다.

이와함께 경보를 위한 특별 태그(Tag)를 이용해서 도범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범방지장치를 전문으로 다루는 센소마틱회사의 테리·로테부사장은 경보장치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매년 약 40%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한해만해도 이 회사에서는 $242만달러 정도의 경보장치가 판매되었다.

이회사는 고성능의 감지능력을 가진 태그(Tag)를 상품에 붙여 스토아 정문을 통과할 때 감지할 수 있도록 고안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시그마(Sigma)안전회사도 비슷한 장치를 개발했는데 최신 콤퓨터를 이용해 아주 얇은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급하고 있다.

이 태그는 특수합금된 얇은 판으로 셔츠나 타이에 부착할 수 있게 고안되어 있으며 직원이 세일즈데스크에서 가격표를 떼지않고 나갈때 경보를 울려주는 특별장치이다.

경찰과 안전요원들은 한결같이 좀도둑은 날로 성행하고 있으며 남녀노소, 빈부없이 순간적으로 범행하여 방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이들의 범행은 배가 고프거나 가난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심리학적인 병증세에 의한 스릴기대(Trill-seeking)나 자기현시의 충동에서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대부분의 범행자들은 그들의 주머니에 물품에 상당하는 돈들을 가지고 있다고 경찰요원은 말했다.

날치기 범인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하는 문제 역시 가장 심각하고 힘든 문제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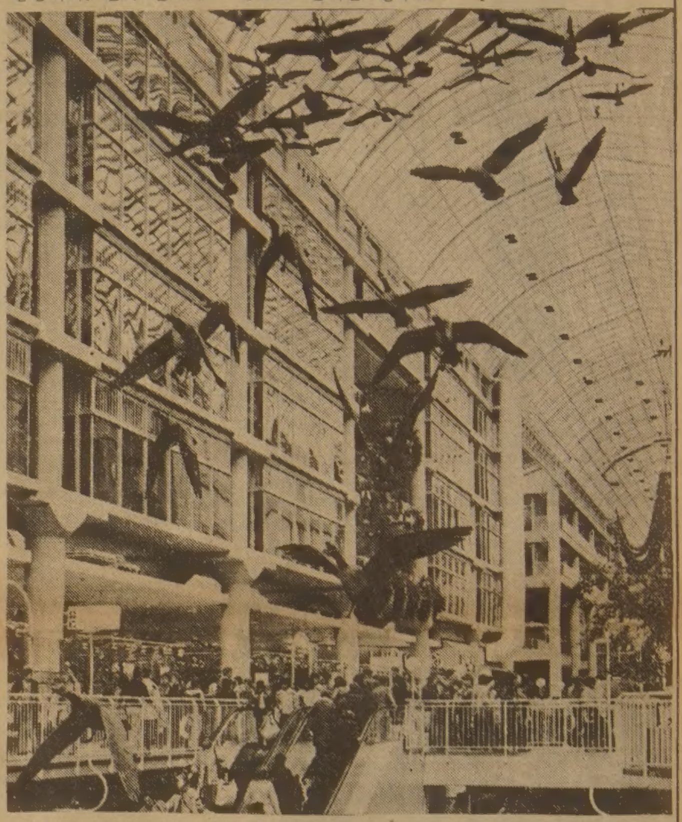
한 옷가게의 주인은 비싼 옷을 훔친 날치기를 낚아챘으나 법정에서 이를 해결하는데 약 1달이라는 기간을 지냈다고 진술했다.

그 기간동안 그 옷은 유행과 시즌을 다보내고 팔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손해만 보게 되었다면서 물품이 스토아 밖에 나가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 가게 주인은 말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들치기들에게 대한 가벼운 형량이다. 현재 날치기범들은 대부분이 불구속으로 벌금만 물고 나오는 형편이다.

어떤 들치기는 전과 16회인데 단지 2개월형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형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점포주들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다. (토론토·스타지에서)

◆이튼센터의 안전경비원이 몰리는 인파를 모니터를 통해 감독하고 있다. 현재 토론토 경찰도 센타안에 지서를 상설할 것을 고려중이다.



◆가장 복잡한 다운타운의 이튼센터. 일년에 약$3백만 정도의 상품들이 도난당하고 있다.

〈연재소설〉

혼돈 ⑯

글·이태준 그림·최미경

제2편 착수

새어머니의 구역질나는 능글스러움도, 아버지의 돈을 울거내기 위한 위장된 교태도 엿보이지 않았다. 그의 불안한 영혼을,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고 채워줄 수 있는 안식처가 그녀의 품속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영수는 몸을 뒤쳐 베개에 얼굴을 묻고 비비었다. 그녀의 품안을 그리워하며 얼굴을 깊숙이 깊숙이 묻으며 비비었다.

영수가 잠이 깼을 때 어머니는 곁에 없었다. 다 큰 아들을 안고, "영수야 자니?"하고 처연하게 묻기만 하던 어머니는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안을 휘둘러 보았다. 역시 어머니는 없었다. 모두가 떠나버린 빈집에 혼자 남은 것같은 외로움이 몰려왔다. 그도 무엇인가를 해야할 것같은데, 썰렁한 집안을 떠나야 할 것같은데 할 일도 갈 곳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썰렁하게 비어있는 안방문을 열어 보고는 풀이 죽어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하얀 봉투가 책상위에 놓여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것이었다. 거기에는 꽤 많은 돈과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영수야! 어머니는 떠난다. 자식을 두고 떠나는 에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미영이를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가슴 아프다. 부디 훌륭하게 커다오."

편지를 다 읽고난 그의 손이 힘없이 처져 내렸다. 동생 미영이는 집을 나간 뒤 소식이 없고, 아버지는 외박을 하고, 어머니는 떠나버렸다. 어미새가 떠나고, 다 자란 새끼새들이 날아가버린 빈 둥지의 집에서는 "우우!" 찬바람이 부는 것같았다. 그는 어머니가 남기고 간 돈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집을 나왔다.

어디든지 가서 정신없이 무엇을 해야만 껍데기만 남은 것같은 가슴을 채울 수 있을 것같았다. 그는 급히 다운타운 쪽으로 차를 몰았다. 어둠과 침묵 속에 잠들어 있던 도시가 여명과 함께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어둠이 서려 더욱 우중충해 보이는 낡은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았다. 구수한 만두국 냄새가 스며나오고, 하품소리와 말소리가 새어나오는 지하실의 출입문을 두드렸다.

"뉘세요?"

귀에 익은 할머니의 쉰 목소리였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에구! 학생이 웬일이유?"

"손님들 와있지요?"

"몇분은 가고, 넷이만 남아 있구먼요."

그는 담배연기가 자욱한 응접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까칠한 얼굴로 포카를 조이고 있었다.

"형들은 가게문도 안 여세요?"

영수의 목소리에도 그들은 까닥도 않고 포카를 조이고 있었다.

"영수니? 웬일이냐?"

영수와 몇번 포카를 한 적이 있는 김이라는 청년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물었다.

"기분도 그렇지 않아서 한판 쪼이러 왔어요."

그때서야 네명의 포카꾼들이 영수를 바라다보았다. 밤샘을 한 그들의 얼굴은 기름기로 번들거리고, 벌건 눈에서는 이상한 광채가 번쩍거렸다.

"자금만 많이 가지고 왔다면야"

김이 수북이 쌓인 판돈을 긁어들이며 대꾸했다.

"아마 오늘은 제가 형보다 자금이 많을걸요."

"그래 듣던중 반가운 소리다. 어때, 당신들은? 「나이아가라타번」의 김사장 자제분인데 끼워주지."

김이 영수와 안면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세 사람의 의향을 물었다.

"자금이 김형보다 많다는데 환영을 해야지요."

김의 맞은편에 앉아 담배를 빨고 있던 사내가 자리를 좁히며 말했다.

영수는 김의 옆자리에 앉았다.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뭐, 좋은 자리도 아닌데 이름은 차차 아시고 성만 알아 두세요. 나는 박이요."

김의 왼편에 앉은 사내가 인사를 받자 약속이나 한듯이 나머지 두 사내도 성만 밝혔다.

"나는 최요."

"나는 이요."

영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간 돈을 꺼냈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천불정도는 되는 것같았다. 이백불 어치의 칩을 사고, 나머지는 담요밑에 넣어두고 포카를 시작했다. 뱃은 오불부터 시작해서 이백불까지 할 수가 있었다.

최가 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재빠른 솜씨로 포카를 섞고, 컷트를 요구한 다음 날렵하게 포카를 나누어 주었다.

"오디에서는 눈치와 배짱이다."

영수는 속으로 되뇌이며 석장의 카드가 배달될 때까지 펴보지 않고 상대방의 눈치를 살폈다.

에이스의 카드가 앞에 깔린 박이 5불을 중앙에 던졌다.

영수는 최와 이를 따라 콜을 하고 엎어진 두장의 카드를 펴들었다.

"아! 왔구나."

영수의 앞에는 투 클로버가 깔려있고 손에는 텐 클로버 페어가 들려있었다.

"5불씩 더 얹으시오."

마지막 순서인 김이 10불로 레이스까지 해주었다. 영수는 20불로 받아 칠까 하다가 너무 서두르지 않나 싶어 5불만 더 집어던졌다.

카드가 석장씩 바닥에 깔렸을 때, 뱃은 80불까지 올라갔다. 영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아직 10페어 밖에 확보하지 못한 그는 박에게서는 스트레이트를, 김에게서는 케이 투 페어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는 포기할까 하다가 뚝심으로 80불을 집어던졌다.

"유일한 희망은 플라쉬다. 행운의 클로바여! 행운의 클로바여!"

그의 기원대로 세븐 클로바가 활짝 웃으며 엎어졌다. 카드는 이제 하나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벳이 최고 액수인 2백불로 껑충 뛰었다.

"아-, 이걸 어쩌나? 한장의 카드에 2백불이라."

영수는 손에 땀이 났다.

그는 다시 깔려있는 카드를 훑어보았다. 맨 마지막으로 배달된 스페이드 세븐이 번들거리며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어차피 도박은 도박이 아닌가."

칩을 다 소비한 그는 담요밑에 넣어둔 현금에서 2백불을 집어던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배달된 카드를 조금씩 조금씩 조이기 시작했다. 덮어진 카드를 밑으로 내릴수록 허연 공백이 계속되었다. 그의 콧등에 송송 땀이 맺혔다.

(계속)

방황하는 영수는

도박에 빠져들어…

멕시코로 최종결정

86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국

86년도 월드컵 축구대회의 개최국이 멕시코로 결정됐다.

2일 세계축구협회의 하벨랑회장은 미국과 캐나다도 주최를 위해 최후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양국은 아직 준비가 미비했다고 밝히고 멕시코는 이미 국가적으로 모든 준비를 끝낸 형편이라고 선택경위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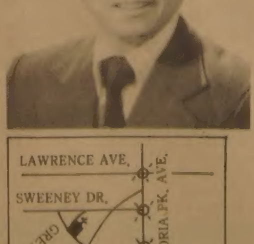
지난달 세계축구협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캐나다와 미국의 경기유치안에 대해 의논하고 조사한 후 내면적으로 멕시코가 유리하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세계축협 대표는 9일 캐나다를 방문하고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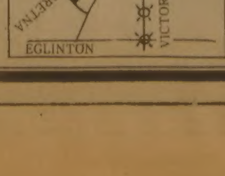
533－2361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은혜의 시간



◆일자 : 1983. 5, 12(목)~15(일)
오후 7 시30분
◆장소 : 빌라델비아장로교회
(7 Gretna Ave.)
◆강사 : 윤 철 주 목사 TH. M., D.D.
□대구 서현교회
□군산 개복동교회
□서울 남교회
□L. A. 헤브론 장로교회



주최 · 빌라델비아장로교회

장학생선발공고

Scholarship for Korean Students

본재단은 제5차 장학생선발을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오니 많은 학생의 지원을 바랍니다.

●대 상 자 : 1983－84학년도 대학교, 전문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할 한국인학생.

●선발인원 : 5명 ●장학금액 : 1인당 $1,000 ●신청마감 : 1983년7월31일

●구비서류 : (1)지원서(본재단 소정양식) (4)한국인 1인 추천서
(2)최근 2년 성적증명서 (5)자기소개와 장래의 포부를 기초한 수필
(3)학교선생 2인추천서 (6)6개월안에 찍은 사진 4매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기재하고 (한국인추천서는 제외) 원본과 사본 각1매를 제출할것.

●지원서 요청 · 제출및 문의처 : 과거에 신청했던 학생도 재신청할 수 있읍니다.
Korean－Canadian Scholarship Foundation c/o Dr. Y. Lee
30 Humbertown Center Suite 9 Islington, Ont. M9A 3T7
☎233－9301(이영일) 533－7923(강공선)

카나다한인장학재단 Korean－Canadian Scholarship Foundation
이사장 강 공 선

登記업무 컴퓨터化

내년 시범登記所선정 운영
謄·抄本 5분이면 交付받아

앞으로는 5분이면 등기신청을 마치거나 등기부등·초본을 교부받을수있으며 서울에서도 지방에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초본을 뗄수있게된다.

대법원은 2일 「등기업무전산화계획」을 확정, 내년부터 시범등기소를선정, 등기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하며 87년에는 서울등 대도시등기소로 확대하고 88년부터는 전국 1백76개 등기소에서 모든 등기업무를 완전히 컴퓨터로 처리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번 등기업무전산화계획에 모두 20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추정, 내년부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키로했다.

대법원은 등기업무가 완전전산화되면▲민원인이장시간 기다리거나 다음날다시가야하는등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고▲등기부의 변동사항이 신속·정확하게 처리되며▲장시간 대기에따른 급행료요구나 사법서사와 등기공무원과의 유착등 부조리가 제거되는등의 효과를 거둘것으로 내다보고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등기부등·초본을 신청해서 받아볼때까지는 빨라야 2~3시간이 걸렸고, 등기신청의 경우엔 상오에하는경우 하오에, 하오에하면 다음날상오에야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을수있었다.

대법원의 등기업무전산화계획에 의하면 ▲84년과 85년 2년동안에는 시범등기소1개를 선정,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86년에는 시범등기소에서부터 등기부등·초본 신청은 전산처리로, 등기신청은 전산처리와 기존처리방법을 병행하며 ▲87년에는 서울등대도시에서 역시 병행처리하고 ▲88년이후에는 전국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업무를 완전히 전산처리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대법원은 이를위해 84년에 대형컴퓨터를 구입, 대법원에 설치하고 재경법원및 지원에 단말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 87년까지는 초대형기1대를 대법원에 설치, 대형기및 중형기를 전국지법에 설치하며 전국지원및 등기소2백59개소에 단말장치 2~4대씩 모두 5백대를 부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어느등기소에서나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을 하면 단말장치를 통해 지법에 설치된 컴퓨터에 입력된 등기부내용이 자동복사돼 받아볼수있게된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전체 사법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자체인력확보를 위해 전산처리관·전산처리사등 전문직5명을 이미 확보하고 올해안에 일반직19명을 정부전자계산소에파견, 전산업무를 익히게할 계획도 세워놓고있다.

87년부터 서울등 大都市확대

그런데 최근10년간 등기신청건수는 연평균 8%씩 증가해왔으며 등·초본교부신청도 연평균 11·4%씩 증가해왔다.

또 올들어 3월말까지만 해도 지난해 같은기간에비해등기신청은 26·6%, 등·초본 교부신청은 무려 41·5%가 증가, 등기업무가적정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등기공무원이 현재의 1천명에서 두배인 2천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崔奎植기자】

IPU外交강화

6월까지 98개會員國에 초청장

오는 10월2~11일 開催

국회는 국제의회연맹(IPU)서울총회개최가 확정됨에따라 오는10월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總會 개최시기로 결정, 이를 성공적으로 치르기위해 이달하순부터 6월중순까지 共産圈을 포함한 98개 회원국에 일제히 초청장을 발송하고 非同盟圈 국회의장들을 대거초청하는등 의회차원의 외교를 대폭강화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를위해 5월초순부터 9월까지 7개常任委와 10개 의원친선협회팀을 阿·中東등 비동맹국가에 중점적으로 파견, IPU와관련한 의원외교를 한층 적극화할 계획이다.

蔡汶植국회의장은 2일 『5월중 印度·파키스탄·튀니지등 3개국 국회의장단을 공식초청하는등 IPU개최이전까지 약 20개국의 前現職국회의장단을 초청할 계획』이라며 『특히 北韓을포함, 우리와 외교관계가없는 非同盟共産회원국에 대해서는 당연히초청장을 직접발송하거나 IPU사무처를통해 초청장을 전달한는등 모든회원국에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蔡의장은 『우리가 東獨·쿠바등 공산국에서열린 IPU총회에 참석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념과體制에 관계없이 많은회원국이 참가해줄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총회기간중▲유엔산하의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기관도 많이참관토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의 한관계자는 IPU서울총회에 약 1천3백여명을 초청하며 특히 공산권회원국들에게는 IPU사무처를통해 3백50여장의 초청장을 발송하게될것이라고 전하고 『5월하순이나 6월초에 시작될것으로 보이는 제1백17차 임시국회가 끝난뒤 7월부터 회의장소로 사용될 국회의사당시설改造작업에착수하며 개회식만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케될것』이라고 말했다.

7월 韓日外相회담

나까소네首相 밝혀

【東京=聯】아세안 (동남아국가연합) 순방길에 나선 나까소네 일본수상은 30일상오 특별기내에서 동승한 기자단과 회견을 갖고 오는7월 韓·日외상회담이 열리게될것이라고말했다.

이번 韓日외상회담은 지난1월 全斗煥대통령과 나까소네수상간의 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시킨것으로 양국 외상들은 경제·무역등 현안에 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社會漫評

바쁘다./ 바빠…

슐츠美國務 被擊모면

레바논 美大使館부근에 砲彈떨어져

【베이루트AP UPI=聯】중동평화달성을 위해 왕복외교활동을 펴고있는 조지·슐츠 미국무장관의 목숨을노린것으로 보이는 중공제 카추샤 로키트탄 2발이 1일새벽1시30분 (한국시간 상오8시30분) 베이루트의 미대사관저부근에떨어졌으나 슐츠장관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않았다.

대사관저의 경비책임을 말고있는 엘런·버그하드미해병중위는 카추샤 로키트 1발이 대사관저 후방 90m지점에 떨어져 폭발, 지면에 구멍을 낸채 다른 피해는 없었으며 동시에 발사된것으로 보이는 다른 1발은 불발된채 인근 레바논 민가에 튀어들어 유리창을 박살냈을뿐 안에서자고있던 사람들은 무사했다고 밝혔다.

버그하드중위는 폭발현장을 감식한결과 발사지점은 베이루트동부로서 대사관저를 목표로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이날 발사된 포탄은 베이루트시장에서 얼마든지 구할수있는 1백22mm中共製 카추샤 로키트탄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이 「法의날」受賞者들을 접견하고있다. 【崔東完기자찍음】

"法지키는風土 뿌리내려야"

全대통령, 「법의날」受賞者등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2일 하오 高在鎬씨(변호사)등 제20회 「法의날」受賞者8명과 金澤鉉대한변호사협회장등 법조계간부 10명을 청와대로 초치, 다과를 함께들며 환담을 나눴다. 〈사진〉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法을알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특권의식을 갖고 法을 준수하지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先進國이 되기위해서는 法질서를 이행하는 풍토가 우리사회에 명실상부하게 뿌리를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法을몰라 못지키는 수도 있기때문에 법을 전공하지않은일반국민들도 쉽게 이해할수있도록 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법의 종류가 많아 모든 국민이 모든법을 다 알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기와 관련된 분야만큼은 어느정도 이해해법의 보호를받거나 권리를찾는데 지장이 없도록 돼야한다』고 답부했다.

이자리에는 裵命仁법무장관 韓柄寀국회법사위원장 金容喆법원행정처장 金錫輝검찰총장이 배석했다.

가봉民主黨 총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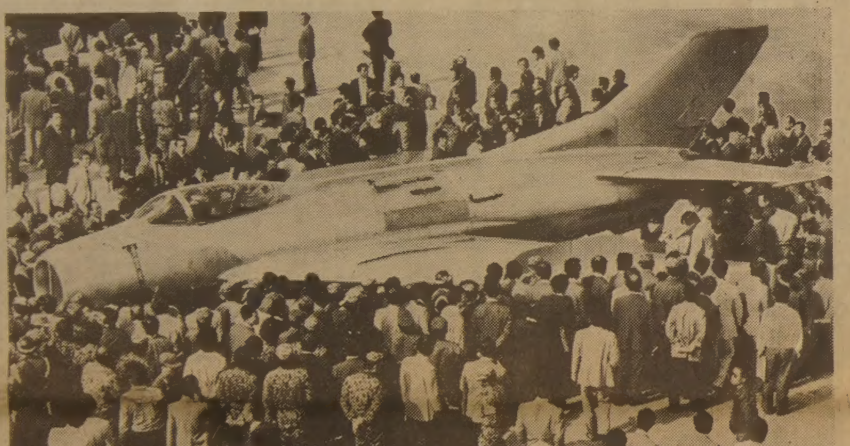
全斗煥대통령은 2일상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가봉民主黨의 레옹·오제총재상임대리를 접견하고 환담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양국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협난한 80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南南협력의 강화가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 『한국은 그동안의 경제발전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갖고있고 가봉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양국이 서로 보완하고 협력을 강화해나가면 공동의 번영을 이룩해 다함께 선진국대열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않은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國赤總裁접견 勳章

全斗煥대통령은 2일하오 청와대에서 엔리케·데·라·마타 赤十字社연맹총재(스페인人)를접견하고 修交훈장光化章을주었다.

가장 큰活字 선명한 한국일보



◇이웅평대위 미그機 첫公開

◇2일하오 중부전선OO기지에서 공개된미그19기。이웅평대위가 귀순할때 타고온 이미그19기는 이날 공군기지방어훈련에 참여, 시범비행을 마친후 내·외부가 모두공개됐는데 지상공개는 처음이다. 【朴容弘기자찍음】

일부閣僚 去就관심

巨額도난관련 今週 또는 來週가 고비

임시국회가 끝나고 고위경제각료의 盜難피해액이 巨額으로 밝혀짐에따라 政界일각에서는 일부각료들의 去就에 관심이높아지고 있다.

改閣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것은 이번임시국회를통해 與野의원들로부터 몇몇부처가 집중적인공격의 대상이된데다 고위경제각료의 趙世衡사건피해액이 당초보다 거액으로밝혀져, 이에따른 일부각료의 경질이 불가피하지않겠느냐는 관측때문인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與黨의 한간부는 일부각료에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데다 일부각료들이 해외출장중이거나 해외출장에나설예정으로있는등 改閣을 할 객관적인 이유가없다는 점등을들어 改閣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있다.

이같은 엇갈린 견해로미루어 改閣여부는 今週또는 來週가고비가 될것으로 일부에서는 관측하고있다.

金副總理 도난被害 정확한眞相 밝혀야

民韓·국민 촉구

民韓黨과 국민당은 2일 金埈成부총리가 趙世衡에의해 盜難당한 被害品중5억여원의 有價證券이 있었던 사실에대해 각각성명을 발표했다.

民韓黨의 金文元부대변인은『정의사회구현을 국정지표로 삼고있는 현정부의 부총리집에서 무려 5억원상당의 각종會社債어음등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이야말로 정부스스로가 국정지표의 허구성을 드리낸 중대사임을 지적코자한다』면서 『수사당국이 金부총리의 도난피해액을 70분의1로줄여 발표한것은 공권력을 추락시킨것으로서 그경위를 국민앞에 소상히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관계관이 국회에서까지 도난액수에 대한 僞證을 서슴지않았다는 사실에 정부는 그 책임을져야하며 피해품의 입수경위細目등을 자세히 밝혀 이사건으로인한 국민의 의구심과 違和感을 덜어주고 추락된 정부의 신뢰를 되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의 金完泰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도난피해액이 무려5억원에 달했다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당국의 정확한 진상발표와함께 적절한 대응책강구가 있어야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이 정부불신과 官民간의 위화감을 깊게 조성하는 사례로 등장했다는점에서 일부지도급인사들의 호사스런 생활에 일대각성이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4월중 輸出실적 19億1千만 달러

지난 4월중 수출실적은 19억1천2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1%가 늘어났다.

地平線

가정용 비디오·게임·세트도 이제는 전자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옛날과 같지 않다. 그 제1세대가 핑퐁처럼 주거니 받거니식이었다면, 이제는 화려한컬러로 만화영화처럼 그림이 나오고, 게임방식도 꽤복잡하다. 하지만 아직은 돈을 넣고 즐길수있는 전자오락실의 기계에 떨게 못된다.▼전자오락기계는 두부분으로 구성된다. 컴퓨터와 게임·카트리지다.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된카트리지를 끼워넣어 게임을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현대의 컴퓨터기술이만들어낸 오락기구가 다름아닌비디오·게임이란는것이다. 가정용의 경우 아직은 기억용량 16K의 칩을쓰고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32K나 64K같은 고도의 기억용량을 갖는 마이크로·칩을 쓰게될 것이다.▼미국의 경우 가정용 비디오·게임·세트는 벌써 1천5백만 가구에 침투해 들었다. 최대의 메이커인 아타리회사제품은 1백80달러(14만원)선이고, 그다음 마텔사제품은 약간 비싸다. 미국에서는 작년말 현재로 예상시장규모의 14%를 겨우 채운 형편으로 전자오락기계는 개인용 컴퓨터와 함께 전자업계의 군침을돋우는 노다지판이다.▼전자오락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시비가많다.유럽쪽은관대한 편이지만 프랑스에서는 16세이하 청소년은 부모와 동반해야만 오락실에 갈수있다. 서독에서는 18세이하의 출입을 금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필리핀·대만·싱가포르서는 전자오락실을 아예폐쇄했고 홍콩에서는 16세이하의 출입을 금지하고있다.반대론자들은 이것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전자오락 지지론자 들은 그것이 컴퓨터 시대에 적응하는 훈련이 될수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프로그래밍을 할수있는 시설을 갖춘 업자에 한해 허가한다』는 우리 보사부의 양성화방침도 같은 입장이라고 하겠다. 아마도 전자부품업계에도 시장을 열어주는 결과가 될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지 먼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앞서야할 것이다.

한국일보
우리고장의 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 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개업5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

◇각종 가와이 피아노 $2,500부터
◇전자올겐 $1,600부터
◇BONTEMPI올겐 $695부터
◇야마하 PORTABLE(소형)올겐 $175부터
☆은행융자를 이용한 6개월~2년간의 정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합니다.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險難한 왕복外交

레바논 1泊…슐츠 美國務노린 로키트砲彈

조지·슐츠美국무장관이 취임후 처음으로 유혈분쟁 지역에서 자신의 외교역량을 평가받을 시험대에 올라있다. 그 무대는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시되는 지역가운데 하나인 中東.

슐츠장관이 中東으로 부리나케 달려간것은 2주전에있었던 레바논주재 미국 대사관 폭파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되었지만 최근들어 레이건행정부의 외교정책, 특히 中東정책에 대해 비판이 점증하는 추세이고 슐츠장관의 무능여부에 그같은 비판의 촛점이 모아지고 있었다는점에서 슐츠장관의 中東行은 귀추가 크게 주목됐다.

지난달25일 미국을 떠난 슐츠장관은 이집트를 거쳐 이스라엘에 도착, 이스라엘정부 관리들과 1차협의를 가진뒤 29일 레바논으로날아가 대사관폭파사고 현장을 돌려보고, 아민·제마 레바논대통령등 레바논 지도자들과 협의를 가졌다.

그가 베이루트에 머물고 있던 1일새벽 그의 숙소인 美대사관저에 로키트포탄이 날아와 터졌다. 그의 왕복외교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것임을 예고하는 듯한 사건이었다.

포탄이 다행히 관저건물을 빗나가 위기를 모면한 슐츠장관은 이날낮 애써태연을 가장한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메나헴·베긴 수상등 이스라엘지도자들에게 레바논지도자들과의 협의내용을 설명했다. 슐츠장관은 3일 다시 레바논으로 갈 예정이며 주말께는 시리아도 방문할 예정인것으로 전해졌다.

슐츠장관의 왕복외교의 당장 촛점은 레바논내외국군의 철수문제. 이것이 성사되면 다음엔 流血없는레바논 정세를 안정시키는일이다. 현재 레바논에는 시리아군 약4만명, 이스라엘군 약3만명, 팔레스타인 게릴라 약6천명이 주둔하고있다.

이밖에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등에서 파견한 2만여명의 다국적평화군이 진주하고 있다. 다국적 평화군은 물론 이스라엘·시리아 팔레스타인등 레바논이 원치않는 외국군의 철수를 돕기위해 파견된 군대지만 여하튼 다국적 평화군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 레바논에는 약10만명의 외국군이 득실거리고 있는 셈이다.

시리아는 지난 75~76년 레바논내전때 파견한 병력을 계속 유지시켜오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작년 6월 레바논침공때 투입한 병력중 일부를 남겨두고있는 상태이다.

◇조지·슐츠美국무장관(左)이 30일 이스라엘로부터 레바논에 도착, 레바논 대통령宮에서 필립·C·하비브 美 대통령특사(왼쪽에서두번째), 아민·제마엘레바논대통령(오른쪽에서 두번째), 엘리·살렘레바논외상등과 레바논內 외국군철수협상에관해 논의하고있다. 【레바논30日AP發=聯合】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미국을 중간에 끼고 이스라엘군의 레바논철수에 관한 협상을 지난4개월동안 성과없이 계속해 왔다. 레바논은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인 전면철군을 요구했고, 이스라엘은 자국과의 국경지대인 레바논남부에 자국병력을 주둔시킬것을 주장하고있다.

이스라엘측은 레바논남부 국경지대에 5개의 초소를 설치, 자국군대및 정보요원 7백50명을 주둔시킬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이스라엘군을 레바논내에 잔존시키는 것은 철군의 명분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레바논측은 이를 거부해왔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원을 받고있는 하다드소령이 이끄는 레바논의 기독교민병대로 하여금 국경수비를 맡게하든지, 이스라엘군과 레바논군이 합동순찰을 하자는등의 代案을 제시했다.

이같은 제안들을 놓고 협상을 계속한 결과 5개의 이스라엘군초소대신 2개의 레바논사령부로 바뀌었고, 하다드를 사령관이 아닌 부사령관으로 하는등 협상에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즈음 레바논주재 미국대사관 폭파사건이 터졌고, 하비브와 드레이퍼등 두명의 中東특사에게 협상임무를 전담시킨채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왔던 레이건행정부는 中東평화협상에 보다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키위해 슐츠장관이라는 巨物을 직접파견키로 결정했던 것이다.

"外國軍철수 突破口마련" 낙관적 제스처

시리아、入國수락 未知數

그러나 中東문제는 얼굴이 바뀌고, 사람의 格이높아졌다해서 문제가 해결될만큼 단순치가 않다.

슐츠장관이 풀어야할 가장 큰 과제는 이스라엘군의 철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군철수에 전제가 되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군의 철수문제다.

시리아는 최근 소련으로부터 샘5미사일및 T72탱크 미그25전폭기등 최신예장비를 대거 지원받은데힘입어 이스라엘과의 무력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나오고있다.

만약 레바논에서 시리아군이 전면 철수할경우 시리아는 이웃 아랍국가들로부터 서방측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받게될것을 우려하고있다.

결국 시리아로서는 레바논철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있기때문에 사소한 꼬투리만있어도 자국군철군반대이유로들고나와 협상진척을 어렵게 하고있다. 시리아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고있는것은 소련으로부터 군사장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무력대결이 벌어지게될경우 과거처럼 소극적인 지원이아니라 적극개입에 나설것이라는 믿음성있는 언질을 받았기때문이 아닌가하는 추측도 나오고있다.

현재 시리아에는 5천여명의 소련군사요원들이 와있는데 이는 1년사이에 배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레바논내 외국군철수협상의 최대변수가 되고있는 시리아군의 철수문제를 타결짓기위해 슐츠장관은 시리아도 방문할 계획으로 있지만 시리아가 그의 방문을 받아들일지조차 아직 미지수.

슐츠국무장관은 지난74년 키신저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오가며 왕복외교를 펼치던 모습과는 달리 협상결과에매우 낙관적인제스처를보이고있다.

슐츠장관은 오는 9~10일사이 파리에서 열리는 OECD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어 그의왕복외교도 그이전에 마무리될것으로보인다. 【林鍾乾기자】

메아리

「날의 달」

5월은「날의 달」이다.

어제 초하루가「법의 날」, 5일은「어린이 날」. 이어서 6일은「성년의 날」, 8일은「어버이 날」이자「재향군인의 날」— 이날은 마침 5월의 둘째 일요일이라, 改新敎의「어머니主日」과 겹친다.

중순들어서는 15일이「스승의 날」, 20일은 다시「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5월은「날의 달」, 名日이 無名日보다 많을 것만 같다. 그만큼 행사가 많고, 잔치도 많다.

5월의 화사한 즐거움은, 그래도 햇볕이 더 따가와지기 전, 新綠이 더짙어지기 전 그 첫溯에 두드러진다. 이를하여 家庭週間. 이 주간의 잔칫날 배치는「어린이 날」의 어린이가, 자라서 성년에 이르고, 다시 어버이가 됨을 상정하는 듯하여 재미 있다. 나이를 따라 차례로 온家族 한사람 한사람에게 잔칫 날이 돌아 온다.

하지만, 이들 잔칫 날은 어린이 따로, 젊은이 따로, 어버이 따로의 것은 아니다. 5월잔치의 주인은 남녀의 家族성원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한데 아우른 家族이다. 어린이 잔치를 장만하고, 어버이께 꽃 한송이를 드려서, 한 家族의 중요로운 기틀을 서로 다지는 날들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보면, 예년의 5월잔치는 어딘가허전하다. 아무래도 따로 따로 行事에 그치는 것이다.

이같은 흠은 결코 행사 미숙탓은 아닌성싶다. 오히려 그럴만한 연유가 있어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의 家族정책不在다. 행사계획은 있으되 家族정책은 없더란얘기다.

家族정책의 긴요함은 이제새삼스런 화제가 못된다. 학자들이 家族解體의 위기를말해온지도 이미 오래다.

家族의 解體는 그것 자체가 사회의 解體의 원인이 된다. 거기서 파생되는문제는 사회문제의 모든 局面을 다 짚어야 할만큼 다양하다.

家族이 흩어지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核家族化, 부부간 역할변화에서 오는 갈등으로 家族기능은 크게 약화된다. 이른바「家族기능의 解體」다. 여성문제·노인문제·청소년문제는 그때문에 더 복잡해진다.

이런 추세의 한 첨단을 미국에서볼수가있다. 80년 인구조사에서 한家口의 평균인원數가 2·75인으로 줄어들고, 뉴욕 맨해턴地區의경우는 한家口 평균이 1·96인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자녀數가 줄고 離婚, 그리고 家族이라 할수없는「單身家族」의 증가를 반영한 숫치다. 가히 家族의 解體라고 할만한 지경이다.

이같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카터대통령은 재임중「白堊館家族會議」를 구성했었다. 각 지역별로 12만5천명이 참여하는 家族정책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家族防衛정책을 마련토록 한것이다. 이회의의정책案은 그의 임기가 끝날무렵에 나왔다.

共和黨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레이건대통령의 측근인 폴·랙설트議員등이 家族防衛法案을 제안해놓고있다. 연방정부의 家族內문제 간섭을 배제하는 것등 방대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家口인원數가 80년현재 4·63명이다. 일본의 3·5인보다도 제법많다. 그러나 이 숫자는 20년사이 1·08인이나준 것이며, 80년현재의는 미국의 30년대, 일본의 60년께와 맞먹는다. 게다가 우리에게는傳統으로부터의 급격한 이탈, 社會福祉의 미비란 문제가 따로있다. 그냥 버려두면, 조만간「위기」에 직면할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다운家族정책이 다급함을 생각하는것이다.

이를 위해서, 카터대통령이 집약했던 家族防衛政策, 의회의 家族防衛法案은 좋은참고가 된다.

카터대통령에게 권고했던 정책의우선순위는, 첫째가 家族을 전제로한人事정책(可變出退勤制의확대, 休暇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家族이 함께지내는 시간을 늘린다), 둘째는 술과 마약의 남용방지, 세째가「婚姻稅」의폐지(맞벌이가 유리하며, 家事노동을 보상할수있는 稅制를만든다)등이다.

家族防衛法案은 내용이 여러갈래지만, 그중 稅金관계조항은 ①친척집 자녀 교육비를 대신내주는경우②아기를 낳았거나 양자·양녀를 맞은뒤 1년동안 ②노인을 모신 家庭의 減免稅등을 규정하고있다.

이들 제안은 家族정책의 주안점이 어떤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바탕은 사회정책은 家族을 媒介體로해야 효과적이란 판단이다. 예컨대, 노인을 시설에 수용하는것과, 노인이있는 家族을 지원하여 在家扶養을 받게했을때 차이를 가늠한 것이다. 우리가 福祉시책을 새로 구상할때의 참고가되고, 家族을외면한 정책의 무모함을 깨닫는 꼬투리도 된다.

5월은 누구나「家庭의 달」이라 이른다. 그러나「따로따로 행사」의 달은「날의 달」일뿐이다.

이달을「家族政策의 달」로 높이는 지혜가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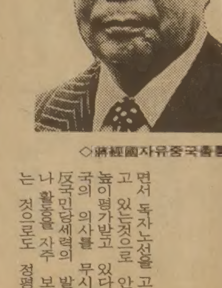
金昌悅 【編輯委員】

黨內보수파、改革세력 제거위해 열띤批判

後繼문제 싸고 臺灣 政情술렁

고령 蔣經國총통 健康악화

올들어 건강악화로 일상적인 집무를 자주피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蔣經國자유중국총통(73)의 후계문제를 놓고 臺灣의 政情이 다소 술렁이고있는것으로 전해진다.



◇蔣經國자유중국총통

지난26일 국민당기관지「中央日報」건물1층에서 일어났던 폭발물사건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정치사건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근「龍旗」「掃蕩」등 국민당보수파의 견해를 대변하는 이론지들이 일제히 당내개혁세력에 대한 비판을개시했다. 비판은 주로 총통부政策고문으로 前黨감찰위원인 陶百川과, 黨중앙위원이면서 대만최대의신문「中國時報」사장인 余紀忠 두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 모두 당원로지만 비판적인 활동이 활발한개혁세력의 前衛들.

이때문에 軍·警을 배경으로한 당내 보수파와 대립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余紀忠사장은 국민당정책을 비판하고 민주화정치개혁을 지지하면서 독자노선을 고집하고 있는것으로 안팎에 높이평가받고 있다. 당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反국민당세력의 발언이나 활동을 자주 보도하는 것으로도 정평이있다. 지난5월 대만의 치안유지를 맡고있는 경비총사령부가 陶百川의 언론활동을 봉쇄하려 한일이 있었는데, 中國時報가 이사실을 폭로, 당국의 계획이 수포로돌아가기도했다.

이들이「黨外人士」로 불리는 국민당 밖의 정치세력에게서 지지를 받고있다는점도 보수파에게는 달갑지않다. 그러나 보수계 언론기관들의 비판이 반드시 이두사람을 목표로 한것이라고는 보기어렵다. 이를 계기로 최근 당내에서 영향을 넓혀가고있는 개혁세력을후계 경쟁권에서 배제하려는데 그숨은 의도가 있는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관측하고있다.

「龍旗」誌가 4월호에서 행정부나 국민당내의「미국식 민주주의 신봉자」를지칭, 맹렬히 비판하는 내용의 사설을실은것이 그 한예다. 이것은 陳履安국민당副비서장, 錢復前외교부副부장(차관)、魏鏞행정원연구발전심사주임, 關中국민당臺北市주임, 連戰교통부장, 孫運璿경제건설委부주임, 宋楚瑜행정원보도국장등 미국식교육을 받은 진보그룹전체를 목표로한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3월말로 예정됐던 국민당 중앙위원회총회가 아직열리지 못하고있는 것도 이런 당내문제가 하나의 원인인것으로 관측통들은보고있다.

東南亞문제의권위誌인「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는 蔣총통이 최근 당뇨병과 함께 시력장애와 보행을 어렵게 하는 신경염이 악화되어 國務결정외의 일상적인 집무는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8년 6년임기의 총통에 취임한 蔣총통은 오는 84년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데, 고령과건강악화때문에 외교계서는 이를 계기로 총통직을 후계자에게 물려줄전망도 있는것으로 점치고 있다. 蔣총통이 물러날경우 그 후임은 현재로서는 孫運璿행정원장이 잠정적으로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관측되고있다.

그밖에 蔣彥士국민당사무총장, 王昇총정치부주임, 宋長志국방부장등이 강력한 후계 지도그룹을 형성, 이를 뒷받침할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차츰 소장층에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臺灣省출신자들을 흡수하기위해 謝東閔부총통이 지명되거나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蔣총통의 實弟 蔣緯國씨가 물려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朴贊式기자】

50년後의 世界는…

美 유·에스뉴스紙 創刊특집 專門家 인터뷰

50년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것은 컴퓨터와 로보트가 많은일을 떠맡고60년대의 걱정처럼 식품·에너지의 고갈이 극복됨은 물론 드디어 암과 다른질병이 정복돼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살만한세상이 될것 같다.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는 오는 9일의 창간 50주년 특집「향후 50년의 세계」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인터뷰한 결론을 이같이집약하고 국제정치에있어서는 미국이 여전히 정치·경제면에서 세계를 지배해나가겠으나 신흥국인 한국 브라질 대만 싱가포르의 도전에 직면하게될 것이며 소련은 국내문제와 기술경쟁에서의 낙후로 영향력이 쇠퇴해나가고 결국에는 일본이 미국과 세계 지도력을놓고 다투게 되는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에스·뉴스지가 46페이지에 걸쳐특집한 향후 50년의 갖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앞으로 50년의 세계는 생활의 모든부문에서 극적인 변화를맞게되는 활력적인 시기가될것이다.

특히 미국경제는 구각을 벗고 전자화시대로 급속히 돌입하고있다. 컴퓨터로보트가 공장 사무실 가정에서 인간노동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줄 것이다.

그래서 근로시간은 週30시간으로 줄고 여가를 즐기게되며 기술발달로 가정은 그자체가 하나의 매체센터가돼 앉아서 각종정보·교육은 물론 오락에 접할수 있게된다.

심지어 쇼핑과 주식투자까지 집에서 컴퓨터로 할수있게된다.

60년대와 70년대초 걱정했던 식량과 에너지의 고갈은 천만의 말씀、과하기술이 오히려 지구의 자원을 늘려준다.

즉 향후 20~30년내에 유전공학은 스스로 비료를만들며 성장하고 해충에도 견뎌내고 그러면서 기본영양분을 고루 갖추고있는 자생적인 식물을 창조해 낼것이다. 수자원은 해수의 탈수 가공、북극의 빙산을 끌어와 며 늘어난다.

의학부문에서도 지금 수준을 훨씬능가하는 괄목할 발전이 기대되고있다. 태양열 수소추진 자동차등과 함께 핵융합기술은 70년대중반 에너지위기를 한낱 역사의기록으로만 남기게할수있다.

1990년대초에 우주에는 영구유인우주정거장이 쏘아올려지고 2천20년께는 달식민지가 생길 것이다.

특히 미래학자 아이자크·아시모브씨는 이때쯤 가면 로보트에의해 작동되는 우주공장들이 생기기 시작할것이라고 예측했다.

21세기에 들어서 미국인의 평균수명이 1백살이상이 될것은 보통일이 된다. 암이 정복되고 심장과 콩팥등이 인공장기로 거침없이 대치되며 노화를 늦출수있는 새로운 발명이 나온다.

달은 지구植民地로

집에앉아서 쇼핑·癌도 정복된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유전인자를 조작、인간의 지능과 수명을 연장시키는데는 윤리적인 문제가 물론 제기된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지구상의 여러나라들을 불가피하게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만든다.

미국에는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이민이늘어 수명연장으로인한 노령층 미국인들과 경쟁하게되며 멀지않아 여자, 흑인 스페인계출신 대통령이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밝은면의 이면에는 어두운면이있다. 인터뷰한 1백명중 한명꼴로핵전쟁 발발위협을 들고있다.

그러나 여섯명의 세계지도자, 즉 레이건, 프랑스의 미테랑, 일본의 나까소네(中曾根), 영국의 대처, 인도의 간디, 멕시코의 마드리드 등은 핵전쟁은 피할수 없는것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분쟁지역을 진정시키기 위해 별들의전쟁같은 우주무기시대로 불가피하게 돌입하게되며 향후 수십년내의 분쟁위험이 있는 지역으로는 中蘇국경, 中東, 한국, 東歐, 남아프리카, 멕시코등을 꼽을수있다.

記者의 눈

여자탁구의 東京비극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몰어간 호랑이의 꼬리를 힘껏 잡아당겼다. 할머니눈은 火光이 충천했고 호랑이는 두려움으로 가득찼다.

실력이 엇비슷한 싸움에서는 정신력이 승부를 결정한다.

사라예보에서 한국구기사상 처음 세계를 제패한후 10년을 맞은 해에 한국여자탁구는 처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결선문턱에서 탈락하는 굴욕을 맛보았다. 10년동안 우위를 확신해온 日本에 1-3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기때문이다.

한국여자탁구팀은 南北대결에 나설 부담도, 中共의 철벽에 몸을 부딪쳐야할 공포도 잊게되었다.

日本과의 싸움에서 우리여자선수들이 더큰 싸움을 회피하기위해 물러선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큰 싸움에대한 두려움은 선수들보다 협회를 이끌고 팀을 지도하는 쪽이 더 심한 편이었다.

탁구협회는 고질병적인 파벌싸움에 멍미가났다. 그래서 대표팀의 운명을 우수한 기술자에게 맡기기보다는 말썽없는 기능인에게 맡기는 쪽을 택해왔다. 정상을 되찾기위해서는 때로 벼랑길의 모험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표팀은 철저히 안전위주의 길만을 찾아 걸었고 세계2위의 성적에 안주했다. 10년동안 지켜온 세계2위의 지위가 한국여자탁구로서는 다행이자 불행이었다.

촉망받던 한국의 신진 梁英子는 30일 日本과의 예선전 3차단식에서 제2세트를 일방리드끝에 21-15로 이겼으나 듀스를 이룬 1·3세트접전서는 모두22-20, 23-21로 석패, 무릎을 꿇었다.

『눈에 투지가 없어요. 지고 나서도 덤덤한 표정이니 오히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더 화가 나요』

73년 사라예보 우승10돌을 기념하는 지난1월「탁구인의 밤」잔치에서 우승의주역이었던 李에리사는 후배들을 이렇게 질책했다.

東京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중인 여자대표선수중 주전2명은 지난1월 국내선수권대회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자 곧이어 열렸던 대표선수최종선발전을 기피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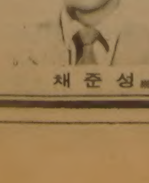
제땅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은 더좋은 땅을 찾아볼 겨를도 없다. 한국여자탁구의 4強권탈락은 정상도전을 위해 더없이 좋은 찬스이기도하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의 꿈은 더 높고 크기때문이다. 【方錫峋체육부 기자】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력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준성

CASH & CARRY
DOMINION SMALL WARES
불꽃놀이(FIRE WORK) SPECIAL 40% OFF

VICTORIA DAY(5월23일 월요일)를 대비하여 가장 다양한 FIRE WORK을 대량입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단, CASH & CARRY인 경우 5% 더 감해 드립니다.)
편리를 도모코져 토요일·일요일 그리고 VICTORIA DAY에도 영업합니다

5월15일(일)	5월21일(토)	5월22일(일)	5월23일 (VICTORIA DAY)
8AM~2PM	8AM~1PM	8AM~2PM	8AM~3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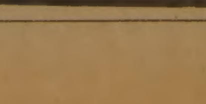
47 Orfus Rd.
(도매상 Loeb 근처)
789-7214
매니저 김 근 래

개 업 인 사
CRYSTAL'S FLOWER MART

제가 금번 블루어×스파다이나 부근에 꽃가게를 OPEN하여, 인사드립니다.
지나시는 길에 1차 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박동호 올림

CRYSTAL'S FLOWER MART
366 BLOOR ST. W. ☎927-8730
☆각종행사및 모임에 주문배달함.
영업시간: 월~토 오전9시~밤11시



「惡臭」뿜으면 罰金

環境廳 7월부터 排出업소 규제

지역·농도·시간별로 기준마련 被害제거때까지 반복賦課

오는7월부터 악취공해배출업소에도 벌금이 매겨진다. 환경청은 2일 오염방지사업단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따라 일상생활에 불쾌감을주는 황화수소 탄산 또는 그화합물, 기타 자극성있는 기체성물질의 배출을 규제키로하고 이달중순께 악취배출부과금 기준을 고시, 계몽기간을 거쳐 오는7월부터 공단주변 지역등을 중심으로 악취를 단속키로했다.

환경청은 악취발생업소가 적발될경우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이전 명령을거쳐 그래도 고쳐지않을 경우 배출지역 오염물질 배출시간등을 감안해 마련한 배출부과금산정방식에따라 악취배출 피해가 없어질때까지 반복해서 벌금을 부과, 이돈을 오염방지사업단기금으로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부과대상은 악취농도 3도(强臭) 이상 배출업체로 4도 (극심한냄새) 5도 (견딜수없는 냄새) 등 농도별로 부과계수를 달리했는데 취락 주거및 상업지역등 특히 주민의 일반생업 활동이 보호받아야할 지역에 대해서는 부과계수를 높여 벌금을 더 매기기로 했다.

환경청이 이날 마련한 부과금 산정방식에 의하면 배출량 1천㎥당 5백원으로 기본부과금을 책정, 부과금을 산출토록 돼있다. 부과금은 「배출물질단위량당 부과금액×배출물질량×악취농도별부과계수×지역별부과금산정지수×연도별부과계수」로 계산되는데 예를들어 공업지역의 배출업소가 시간당 3만3천㎥의 양을 악취농도 3도로 배출, 하루10시간씩 30일을 조업한경우 부과금은 4백95만원이 된다는것이다.

농도별 부과계수는 ▲3도이상 4도미만이면 1 ▲4도이상 5도미만은 1·2 ▲5도이상일 경우에 1·5를 곱하도록 하고 시행연도의 지수를 1로잡아 다음연도부터는 전년도 산정지수에 1·2를 곱해시설개선을하지않는한 부과금이누증되도록했다.

환경청에 접수된 악취로 인한 민원은 지난80~82년 3년동안 65건으로 전체공해진정 9백48건의 7%정도이지만 특히 여름철에많이 나타나고있으며 81~82년중 배출업소실태조사·단속결과 조사업소 2백33개업소중 45%인 1백4군데가 시설을 개선한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국의 악취배출업소는 京畿 9백40 慶南 5백46등 모두 4천4백72군데에 이르고있다. 【任喆淳기자】

都市計劃圖 가짜로만들어 1億臺 토지詐欺

釜山서 3명拘束

【釜山】부산과 경남의 도시개발계획도를 가짜로 만든뒤 복부인등을 상대로 토지를 전매하는 수법으로 1억3천여만원을 사취한 4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釜山지검 특수부 金東柱검사는 2일 토지전매사기단 총책 金泰淳씨 (34·부산北區德川洞359의1·고흥경영)와 판매책 南相忽(43·부산北區龜浦2洞 2 3의92·소개업자)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자금책 尹순자씨 (38·부산南區水營洞1040)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등은 부산시가 東萊區산성지역을 시민위락지로 개발한다는 발표만 있었을뿐 도시계획이 확정되지않자 이곳에 부동산 투기붐을 조성키로하고 지난81년12월께 東萊區金城洞산19 임야 2백70평등 1천5백여평을 3천7백여만원에 구입키로 계약한후 5천분의1 지도에 자기들이 계약한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고 토지옆으로 4차선 도로가 나는것처럼 멋대로도시계획개발도를 만들었다.

이들은 이도시계획도를 이용, 金철용씨 (40·부산釜山鎭區釜田洞)에게 4백80평의 임야와 밭을 2천7백69만원에 팔아넘겨 1천7백여만원을 편취하는등 산성지역에서만 4명으로부터 8천2백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3월에는 경남 金海市三政洞3 47 논1천7백49평등 3필지 2천2백여평을 평당 1만여원씩에 매입한뒤 이일대가 金海市의 이전지및 상가지역으로 개발된다는 가짜계획도를 만들어 신정웅씨 (35·부산釜山鎭區凡川洞)등 3명에게 평당3만2천원씩에 전매해 4천8백여만원을 편취했다.

또 토지전매 조직총책 金씨는 값싼 임야와 논밭을 골라 자금책인 尹씨를 시켜 1천만원미만의 계약금만을 걸고 개발계획도를 가짜로 만들어 판매책 南·朴씨등을 동원, 복부인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해왔다는 것.

金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釜山鎭區에서 고급빌딩을 경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들조직이 부산 東萊區 금곡역과 한우산업이 들어설 북구 명지역의 가짜도시 개발계획을 만들어 더많은 토지전매사기행각이 있을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중이다. 【鄭】

同一숫법前科 20여명 추적

거액수표 盜難… 前은행원등도

거액수표도난및 인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中部경찰서는 2일 동일숫법 전과자 20여명의 명단을 작성, 집중적으로 추적하는한편 상업은행과 미도파백화점일대의 목격자를찾는 탐문수사도함께벌이고있으나 뚜렷한 단서를 찾지못했다.

경찰은 朴燦熙씨 (22)등 상은직원들을불러 동일숫법전과자 2백여명의 사진을 열람시켜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20여명을가려냈다.

경찰은 범인이 ▲일반인에 생소한 상은금융채권부에 재빨리찾아가 현금과수표를 인출했으며 ▲수표에 이서(裏書)한 大宗기업이 실제로있는 기업체라는점 ▲상은직원 朴燦熙씨가 신탁은행 온라인 송금업무를 처음맡았다는 사실까지 미리 알고있었던것으로 미루어 범인은 은행간의 수표거래등 은행업무에 밝은자로보고 전직 은행원, 기업체직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있다.

경찰은 또 범인이 수표에 이서한 「금씨의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는한편 상은직원들의 진술토대로 범인의 몽타지를 작성, 범인이 돈을넣어간 쇼핑백과 함께 이를공개, 시민의 협조를 받기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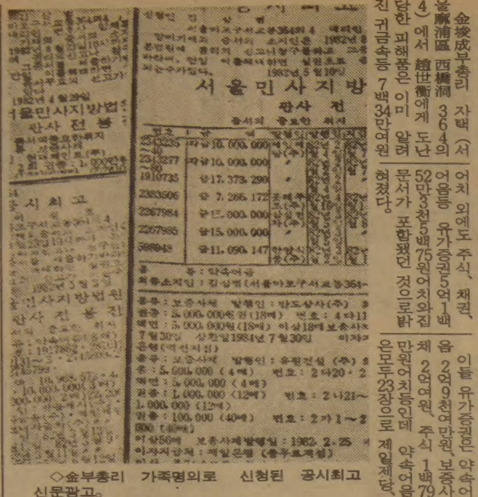
경찰은 또 범인이 수표에 이서한 주민등록번호 「360237」이 주민등록번호상 있을수없는 숫자인데도 상은직원 3명을 거치면서 그대로 현금이인출된 경위도 수사중이다.

韓日 여성親善協 李順子여사 예방

대통령부인 李順子여사는 2일상오 청와대에서 日韓여성친선협회의 소마·유끼가 (相馬雪香) 회장일행4명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韓日여성친선협회의 朴貞子회장이 배석했다.

金부총리집 盜難 피해 어음·株式등 5억여원

趙"불태웠다"자백 搜査안해…公示催告로 禍모면



◇金부총리 가족명의로 신청된 공시최고 신문광고。

金埈成부총리 자택 (서울麻浦區 西橋洞 364의4)에서 趙世衡에게 도난당한 피해품은 이미 알려진 귀금속등 7백34만여원어치 외에도 주식, 채권, 어음등 유가증권5억1백52만3천5백75원어치와 집문서가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유가증권은 약속어음 2억9천여만원, 보증사채 2억여원, 주식 1백79만원어치등인데 약속어음은모두23장으로 제일제당, 삼성전자, 쌍용제지, 동양투자금융, 현대자동차, 롯데주조, 한양식품발행이며 주식은 제일은행주식 21장이고 82장의 보증사채는 기아산업, 반도상사, 유원건설, 현대페인트등이 발행한 것이었다.

당초 검찰의 공소장에는 金부총리집 도난품이 2·2캐럿짜리 다이어반지등 보석류와 1만원권 국민채권등 모두 7백34만5천원으로 돼있었는데 이외의 피해품목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것은 피해신고당시 유가증권등 5억1백여만원을 신고하지않았고 지난해11월 趙가 경찰에 붙잡혔을때 털어놨으나 수사기관이 이부분을 조사치않고 송치, 기소한 때문인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유가 증권과집문서등은 趙가 범행흔적을남기지 않기위해 모두 불태워버렸는데 金부총리의 부인李成鎬씨와 3남 金相範씨(22·미국유학중) 명의로 지난해 4월30일부터 5월15일까지 도하경제지 광고란에 공시최고를해서 피해는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최고자	공시신문·일시·액면	공시최고내용
李成鎬	매일경제신문 82년 4월30일 5천만원	▲起亞産業제12회보증사채10,000,000원권 5매
〃	매일경제신문 82년 5월 4일 1억2천7백99만5천9백66원	◇약속어음 ▲雙龍製紙10,968,572원권 1매 (발행일82년 3월13일, 지급일82년 6월12일) ▲東洋投資4,820,884원권 1매 (발행일82년 3월11일·지급일 82년 6월 9일) ▲第一製糖10,000,000원권 3매 (발행일 82년 3월 9일·지급일82년 6월12일) ▲現代自動車30,000,000원권 2매 (발행일82년 3월11일·지급일82년 6월10일) ▲現代自動車22,206,510원권 1매 (〃)
〃	매일경제신문 82년 5월14일 1백79만8천원	◇第一銀行주권 ▲1천주권 1매 ▲1백주권 7매 ▲50주권 1매 ▲10주권 3매 ▲5주권 2매 ▲1주권 8매
金相範	매일경제신문 82년 5월15일 2억9천1백72만9천6백9원	◇약속어음▲第一製糖10,000,000원권10매 (발행일 6매82년 2월 4일·4매82년 2월 2일, 지급일82년 5월 7일) ▲第一製糖17,373,290원권 1매 (발행일82년 2월 4일, 지급일82년 5월 7일) ▲롯데酒造7,266,172원권 1매 (발행일82년 4월16일, 지급일82년 7월14일) ▲三星電子15,000,000원권 2매 (발행일 82년 3월 5일, 지급일82년 6월 8일) ▲漢陽食品11,090,147원권 1매(발행일82년 3월 2일, 지급일82년 6월 1일) ◇보증사채 ▲半島商事 제 4회5,000,000원권18매 (발행일81년 7월30일, 상환일84년 7월30일) ▲有元建設 제2회5,000,000원권 4매 (발행일82년 2월25일, 상환일85년2월25일) ▲有元建設1,000,000원권12매 (〃) ▲有元建設100,000원권40매 (〃)
〃	한국경제신문 82년 5월16일 3천만원	▲現代페인트보증사채10,000,000원권 3매 (발행일81년 7월 6일, 상환일84년 7월 6일)
계		▲보증사채206,000,000원 ▲약속어음293,725,575원 ▲주식1,798,000원
총계		501,523,575원

金부총리 해명

"公職취임전에 모은財産 法的조치하면 被害없어 申告안해"

金埈成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일상오 자신의 재산형성과정과 도난금품을 전부 신고하지 않은 이유등을 다음과같이 해명했다.

—유가증권도 당초 경찰에 신고 했읍니까.

▲당초 도난 신고는 집사람이 했는데 반지등은 얘기했지만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신고를 안 했는지요?

▲유가증권외에 집문서도 함께 도난당했는데 이런것들은 법적조치를 취하면 아무런 피해도 없는 것이고 해서 구태여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난 신고 당시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사실을 밝힐 기회는 없었는지요?

▲도난당한 후 유가증권이 불태워 없어져 버렸다하고 실제로 아무런 피해도 없는데 일부러 그사실을 밝혀 새삼스럽게 물의를 빚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럴만한 계기도 없었읍니다.

—5억원어치나 되는 유가증권은 어떻게 마련한것입니까.

▲大邱은행장으로 공직에 취임하기전까지 부친이 물려준 공장을 경영했읍니다. 평생 기업을했는데 그만한 재산이야 없겠읍니까. 大邱 射一洞에 4백여평대지에 20개 점포가 있는 상가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만도 연간3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수입도 은행적금에 들었다가 만기가 되면 채권도 사고 해서 모이게 된 겁니다. 여러군데 은행장 하다가 받은퇴직금도 그속에 있읍니다.

—주식·어음·회사채는 언제부터 갖고계시던 것들입니까.

▲주식 1백70만원 어치는 제일은행장으로 있을때 은행간부들과 함께 1백만원어치씩 주식을 사서 갖게 된것이고 그뒤 증자와 배당이 붙어 1백70만원정도 됐고 어음과 회사채는 재산관리 방법의 하나로 보유하고있던 것입니다.

—공시최고에 보면 약속어음발행업이 대부분 부총리 취임후로 돼있는데요.

▲그 약속어음이란것은 이른바 신종기업 어음인 CP입니다. 이 CP는 3개월마다 어음을 바꾸도록 돼있으니까 발행일이 그렇게 될수밖에 없는것이지요. 증권투자 같은 것을 하면 공직자로서 오해를 받을 염려도있고해서 일부러 채권이나 어음을 사두고있던것입니다.

—공시최고에는 부인과 아들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 유가증권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재산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된것은 오랜 관습 때문인것 같습니다.

—작년11월 趙世衡이 검거됐을때 유가증권도 찾으려 했읍니까.

▲물론이지요. 東大門경찰서에서 趙를 잡았다고해서 집사람이 갔었지요. 집문서와 유가증권은 찾을수 있는가 알아봤더니 趙가 불태워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얘기도 않고 경찰도 그 부분은 조사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한편 金埈成부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빚게된데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재산형성과정이나 그것을 관리·운용하는데 있어서는 부끄러운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20代 2명에 유괴 國校生 돈주고 하룻만에 풀려나

光州서

【光州】지난달 30일 하오2시께 光州市西區 花亭洞 삼익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이아파트 선용재씨 (38)의 막내아들 (8·국교1년)이 작업복차림의 20대청년 2명에게 유괴됐다가 부모가 3백50만원을 건네주고 다음날인 1일하오5시께 귀가한사실이 2일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선군에 의하면 놀이터에서 놀고있는데 청년들이 다가와 영화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을 택시에태워 시내로 데려간후 모극장에서 동시상영하는 영화를보여준뒤 다시 택시에 태워 범인의 집으로 보이는곳으로 데려가 잠을자게했다는 것.

아버지 선씨는 30일하오1시30분께 범인들로부터 『당신의 아들을 잘보호하고있다. 현금3백50만원을 준비해 1일하오4시30분께 東區錦南路2街 光州백화점앞으로 나오라』는 협박전화를 받았다.

선씨는 다음날인 1일상오10시께 돈이 준비됐는지를 확인하는 범인의 전화를 받은후 선군과 통화하고 하오 2시50분께 『상황이 급하니 3시10분까지 東區大仁洞 시민극장앞으로 여자가 돈을 갖고 나오라』는 지시에따라 선군의 어머니 이동례씨 (36)를 시켜 약속한 장소로 돈을 보냈다는것.

범인들은 李씨로부터 현금이든 가방을 건네받은후 大仁시장쪽으로 사라졌다는데 선군은 이날하오5시께 택시에 태워져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鄭】

毒殺犯 金여인 오늘현장검증

서울中部경찰서는 乙亥병원 남편독살범 金연주씨 (39)에 대한 현장검증을 3일상오6시 서울지검 趙晋濟검사의 지휘로 乙亥병원454호실과 병원앞 중국집, 청산염을 사왔던 서울冠岳區新大方洞 라피네화장품대리점 등에서 실시한다.

한편 경찰은 金씨가 초코우유 5갑을 사간 곳이 龍山區 漢江路3街40 구멍가게라고 처음 진술했다가 경찰조사결과 거짓임이 드러나자 金씨는 지난22일~23일께 서울銅雀區 新大方洞 6 0 7의 4 미니슈퍼마켓에서 초코우유 5갑을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밝혔다.

피아제時計 절도범 달아났다잡혀 拘束

서울중부경찰서는 2일 서울 로얄호텔 피아제시계 절도범 金龍雲씨 (25·전과2범·서울江南區 論峴洞2의13)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金씨의 삼촌 金斗顯씨 (32·무직)를 장물알선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金씨의 어머니 文在順씨 (54)를 같은 혐의로, 서울中區草洞B금은방주인 孫英譚씨 (35)를 장물취득혐의로 각각불구속입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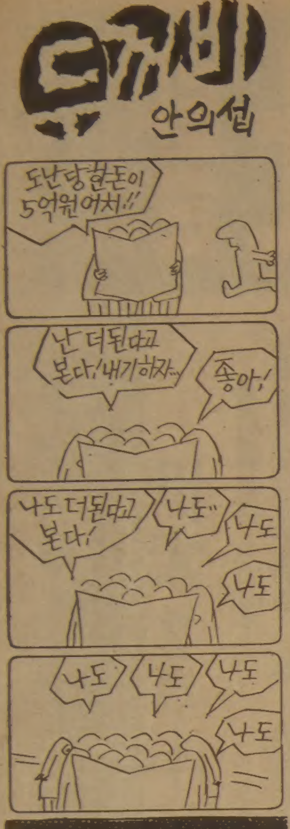
경찰에 의하면 金龍雲씨는 지난달29일 하오5시께 전당포에 스위스제 초호화시계 피아제를 맡기려다 경찰에 연행돼 中部경찰서 지하식당에서 조사를 받던중 달아났다가 하루만인 30일하오6시30분께 자기 집앞에서 잠복중인 형사에게 붙잡혔다.

또 金씨어머니 文씨와친척 金斗顯씨는 金씨로부터 로얄호텔에서 피아제시계와함께 훔친 다이어목걸이와 금팔찌를 『대신팔아달라』는 부탁을받고 지난달 23일 낮12시께 B금은방주인 孫씨에게 1백80만원에 판 혐의다.

5行뉴스

◆축산기업조합醫保인가 보사부는 2일 식육업자 영자단체인 축산기업조합(조합장崔맹전)의 2종직역 의료보험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오는6월부터 급여가시작되는 이조합의 월평균보험료는 1만2천원 (보험료율3·6%) 으로 이에따라 모두 5만4천9백72명이 혜택을받게된다.



불타는 사막

리비아 갔다온 영화作家 白潔씨

말로만 듣던 한국인意志 몸소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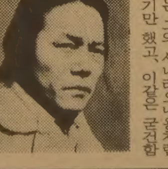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해외진출은 서독에서 싹이 터 월남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이제 탐스런운 열매를 맺고 있다.

그들은 사우디등 중동은 물론 아프리카 오지에 이르기까지 세계곳곳에서 구슬같은 땀을 흘리며 한국인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최근 리비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시나리오작가 白潔씨 (41·사진)는 그는 말로만 듣던 한국인의 의지가 사하라사막에서 땀으로 승화되는 현장을 보았다. 앞을 가리는 모래바람도, 5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도 한국인의 의지를 꺾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 근로자들의 땀방울속에 용해되어 넓찍하고 곧은 포장도로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白씨는 지난번 문공부와 영화진흥공사가 공동주최한 원고료4천5백만원짜리 시나리오 공모에 응모, 경제부문에서 최우수작품으로 당선된 「불타는 사막」의 영화화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3월12일 金浦공항을 떠났다.

영화에서 여러차례 본 사하라의 폭염과 모래바람은 처음 찾아가는 그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모래바다 사하라는 거칠은 야생녀만은 아니었다. 바둑판처럼 사통팔달로 도로가 뚫린 모습은 촌티를 벗은 새색시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막상 닫고서본 사하라사막은 50도의 폭염등 그 성깔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몸에 익숙치않은 사람들은 서있기조차 힘들었다.

근로자들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모래바람과 태양 그리고 끔찍한 고독과 싸우며 사막을 정복해 간다」는 그의 시나리오내용처럼 굳건하기만 했고, 이같은 굳건함은 사하라사막을 뚫은 수많은 도로가 입증해주었다. 『아 이것이 한국인의 의지로구나』하는 생각이 절로들었다.

리비아정부는 白씨의 시나리오 내용을 읽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전국토를 개방하겠다』고 파격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지난번 모영화사가 영화촬영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한것을 생각하면 뜻밖의 일이었다. 사하라사막을 개발하는 한국인의 근면함 「해외진출의 열매」를 멀지않아 영화로 볼수 있게됐다. 【金京姬 기자】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R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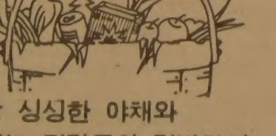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Eglinton Bayview Keele CHINA HOUSE Bathurst B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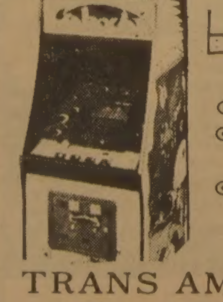
GOLDEN CHINA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개인당 $32.95부터
(세금및 팁 포함)
—50명 이상을 위주로 —
Fruit Punch, full dinner, 포도주 2잔, 술, 뱅쿠엘 룸, 하루밤 숙박 등등.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nue East, Don Mills
(416) 449-4111 Catering 매니저 (Alison MacKinnon)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이 한 구 ☎ : 247—7161
1575 WESTON RD.

한국식품이라면!
제일식품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아오니 가족식탁을 위해서는 물론 각종 파티및 잔치상을 차리실 때는 언제나 제일식품을 찾아주세요.
뒷편에 넓은 주차장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아리랑 식당옆〉
532-1054


비데오게임 머쉰
⊙24시간 써비스
⊙분배율 50% (기계에서 오는 이익)
⊙정기적으로 기계를 첵크·업하고 교환해 줌.
TRANS AMERICAN
☎ : 636—0906

BLOOR—SHAW SHELL SERVICE
▣일반 자동차수리 JOB ▣토잉
모든 자동차 일반 CHECK—UP을 컴퓨터—씨스템(SCOPE)로 즉시 알려드립니다.
한인교포에게는 10% 할인
아리랑하우스옆 주유소
726 BLOOR ST.W
(크리스티×블루어 코너)
☎531—7818, 531—2218 마리오

光州一、3년만에 頂上 탈환

연장10회말 金宣鎭결승타

世光 2루수 당황…送球안해

대통령盃 전국 고교야구

7—6

◇4회말 좌중간 3루타를 치고나간 光州一高 6번 李昊星이 9번 金木政의 외야 희생플라이로 홈인, 4점째를 올리고 있다.

금년도 첫 고교야구정상을 가리는 대통령배의패권은 호남야구의명문 光州一高에 돌아갔다.

2일 서울운동장서 막을 내린 17회 대통령배고교야구대회 결승전서 光州一高는 10회 연장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끝에 10회말1死만루서 3번 金宣鎭의 결승타로 7-6으로 世光高에 신승했다. 이로써 이대회 75, 80년 우승팀인 光州一高는 3년만에 다시 왕좌를 탈환했다.

결승전이 벌어진 서울운동장은 전세버스를빌어 상경한 양교 재학생2천여명을 포함, 2만5천여팬들이 열기의응원전을벌여 고교야구의 열기를 실감케했다.

경기는 결승전답게 초반부터 좇고좇기는 타격전으로 불붙었다.

光州一高는 우완 朴俊泰, 世光高는 崔東昌을 선발로 내세웠으나 모두부진, 2회에서는 양팀이 에이스 文熙秀와 宋津宇로 마운드를 교체했다.

2-2로 동점을 유지하던 균형은 4회말 光州一高의 스타朴俊泰가 포문을 열면서 기울어졌다. 1회말 선제2타점 2루타를 날려 기염을토한 선두5번 朴俊泰가 우전안타로 출루하자 6번李昊星은 위력을 잃어가는 宋津宇의 초구를 통타, 좌중간을 넘기는 3루타를 날려 1점을앞섰다.

이어 7번徐昌貴는 포볼로 나가 2死 주자 2·3루를 만들고 9번金木政의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가.

2死3루의 찬스가 계속된 光州一高는 1번 金星圭가 좌익수 앞에 적시타를날려 5-2, 스코어는 3점차로 벌어졌다.

世光高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5회초 주자 1루에서 4번 姜熙爽이 좌중월 2루타와 崔東昌의 좌전안타로 2점을만회, 1점차로 따라붙었으나 光州一高는 5회말 5번 朴俊泰의 좌중월 솔로호머로 6-4, 다시 2점차로 앞섰다.

7회초, 8-7로 우세한 타격을 보이면서도 리드를 당하던 世光高는 선두1번 朴昌緖가 데드볼로 나가면서 다시 추격의 불을 당겨 4번 姜熙爽의 우월2루타, 5번 崔東昌의 좌전안타등으로 2점을 만회, 두번째 동점을 만들었다.

이때 홈에 들어오던 3루주자 姜熙爽은 협공에 걸렸으나 光州一高 포수의주루방해로 득점이 인정되었다.

◇결승전 전적

세광고	011 020 200 0	—6
광주일고	200 310 000 1	—7

(10회연장)

▲홈런=崔東昌(3회·세광) 朴俊泰(5회·광주)

金始眞 5일 데뷔戰

최하위三星 "팬에게 새決意 보여줄터"

프로야구

프로야구전기시즌서 최하위에 처져있는 三星라이온즈가 어린이날을 위한 이색선물을 준비했다. 三星은 그동안 三星선수들에 대한 어린이팬들의 인기도 조사에서 1위를마크한 신진투수 金始眞을 5일 롯데와의 大邱홈경기에서 어린이팬들을 위해 프로데뷔전을 갖게할 예정이다.

金始眞의 첫등판은 어린이팬에 대한 팀의 봉사는 물론 어려운 입장에 빠진 三星에 재기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로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三星은 李秉喆회장의 특명으로 구단진용을 새로이 갖추었으며 李忠男조감독이 작전권이양에 불만을느껴 소화기장애를이유로 지난30일 고려병원에 입원했고 金昊中투수코치는 사실상 해임된 상태다. 『상대팀 롯데에게 우리선발투수를 미리 밝힌다는것이 결코 이롭지 못하다. 그러나 金始眞기용 공표는 팬들에게 三星의 새로운 결의를 보인다는데 더큰 뜻이 있다』 구단측의 설명.

이에따라 金始眞은 지난달 29일 입단하자마자 29번 유니폼을 입고 5일 데뷔전을 위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주전 黃圭奉·李善熙·權永浩의 부진으로 6개팀중 가장높은 게임당 평균 4실점을 기록해온 三星으로서는 82년 실업야구 최우수투수인 우완정통파 金始眞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1일전적

◆서울

해 태	000 000 002	—2
MBC	000 104 10×	—6

◆대전

삼 성	020 000 010	—3
O B	110 002 10×	—5

▲홈런=李萬洙(2회·삼성) 金裕東(2회·OB)

◆춘천

롯 데	000 000 000 0	—0
삼 미	000 000 000 2	—2

〈12회연장〉

▲홈런=李英求(12회·2점·삼미)

한국女子 첫 本選좌절

「사라예보榮光」 그후10년…蘇에 得失差로

東京세계탁구…男子어제세번째 南北대결

【東京=李廷元특파원】제37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중인 한국남자탁구대표팀은 강호 체코·프랑스등을 꺾으며 기대이상으로분투, 남자예선A리그에서 4승3패로 3위를마크, 5~8위 순위결정전에 진출했다. 한국 남자팀은 2일 하오6시 북한과 5·6위전 진출권을 놓고 격돌한다.

한국은 지난81년 제36회 세계선수권 9·10위전과82년 아시안·게임결승리그서 두차례 북한과 대결, 두번 모두5-4로신승했었다. 한국 남자팀은 남북대결에서 이길경우 3일하오日本-프랑스 전승자와 5·6위전을 갖게된다.

한편 정상탈환을 노리던 한국여자팀은 단체전 B조리그서 개최국 日本에당한 3-1패로 日本·蘇聯과함께 6승1패를 기록, 日本·蘇聯에 세트득실차로 밀려 73년 사라예보에서 우승한지 10년만에 처음 예선탈락의 비운을 맞았다.

◇예선리그최종순위

▲남A조=①중공7승②스웨덴6승1패③한국4승3패④프랑스4승3패(이상순위 승자승)⑤유고3승4패⑥체코2승5패⑦서독2승5패(승자승)⑧미국7패

▲남B조=①영국6승1패②헝가리6승1패③日本6승1패(이상순위 득실점차)④북한4승3패⑤폴란드3승4패⑥이탈리아2승5패⑦소련1승6패⑧덴마크7패

▲여A조=①중공7승②북한6승1패③체코5승2패④네덜란드4승3패⑤서독2승5패⑥헝가리2승5패(승자승)⑦유고1승6패⑧프랑스1승6패

▲여B조=①일본6승1패②소련6승1패③한국6승1패(세트득실차)④영국4승3패⑤루마니아3승4패⑥스웨덴2승5패⑦핀란드1승6패⑧오스트리아7패

女子팀5·6位戰에

한국여자팀은 2일 5~8위순위전 첫경기서 예선A조4위인 네덜란드를 3-0으로 완파, 3일 체코와 5·6위 결정전을 갖게됐다. A조3위인 체코도 이날 B조4위 영국에3-1로 이겼다.

◇예선최종일전적

◇여자단체 5~8위전 (2일)

한 국 3-0 네덜란드

安海淑 2(21-15, 21-13)0 브리세코프

尹璟美 2(21-13, 21-14)0 클로펜버그

安海淑·梁英子 2(21-12, 21-14)0 브리세·클로펜

▲남A조

한 국 5-1 미 국

스웨덴 5-4 한 국

▲여B조

한 국 3-0 핀란드

한 국 3-2 소 련

◇우승 향해 난다 복합마술서 우승李龍文장군盃를 받은 申昌武(대구대학)가 애마「태평양」과 호흡을 맞춰 장애물을 뛰어넘고 있다.

申昌武 복합우승

李龍文장군盃 승마, 69·2點따내

제15회 李龍文장군盃 승마대회가 2일 陸士종합경기장에서 폐막, 大邱大의申昌武가 종합 69·2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첫날 마장마술에서 최고인 29·6점을 따낸 申昌武는 최종일 장애물비월에서도 39·2점의 최고득점을 기록했다.

朴祥燁(중앙대)은 65·52점으로 2위, 金洪哲(경북대)은 60·71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첫날 표준장애비월 경기서는 馬載雄이 유일하게 무감점으로 우승했으며 종장애비월경기서는 7명의 무감점자끼리 벌인 결승재경기서 金禎根(단국대)이 감점3점을 기록, 우승했다.

로사리오, 判定勝 라이트級챔피언에

【산환(푸에르토리코)=聯合】푸에르토리코의 에드윈·로사리오(20)는 1일 산환에서 벌어진 WBC(세계복싱평의회) 라이트급타이틀결정전에서 멕시코의 호세·루이스·라미레스(24)에 판정승, 새챔피언이 됐다.

오른손골절상으로 1년만에 링에 올라온 로사리오는 초반전에 월등한 경기로 점수차를 벌려놓아 심판전원일치의 12회판정승, 한체급올린 알렉시스·아르게요가 내놓은 라이트급의타이틀을 차지했다. 이로써 로사리오는 26승 무패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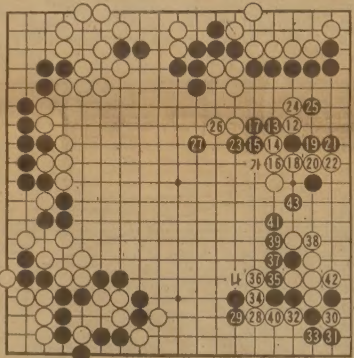
名人战

第14기 挑战者决定리그

第15局 第7譜 1~43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張秀英 〈3勝0敗〉

黑(6段) 徐能旭 〈2勝2敗〉



종반의 대혼전

본보에서 독점한 혼전은 이바둑의 양상을 크게 바꿔놓는 하나의 고비이기에 그 발단이된 白12부터 재현해본다.

당초 黑은 초반부터 조급한 작전을 편탓에 판세를 몹시 그르쳤고 白은 이덕분에 절대 우세한 가운데 승리를 눈앞에 두고있었다.

白12로 직접 27자리에 씌웠더라면 그것으로 黑은 더 두어볼 가망이 없었던 것이다.

白12는 말하자면 27에 두는 수를 좀더 유력하게 만들려는 사전공작이었지만 오히려 黑부스럼격인 확근이 되고말았다. 그러나 실상 白에는 아직도 결정타를 던질 기회가 남아있었다. 黑17에 대해 白18로 23자리를 밀어 黑「가」때 역시 27에 씌워도 마찬가지로 白의 승리는 결정적이었다.

여기에는 물론 張6단의 착각이 있었다. 黑23의 강수가 성립되어 白26에는 黑27로서 위쪽白이 역으로 죽는줄을 까맣게 모르고있었던 고백이다.

白27에 포위해서 상변黑을 잡아야할 기둥말이 떨어져서는 이만저만 낭패가 아니다. 張6단은 자신의 실수에 화가났는지 白28로 처들어갔다.

이것은 열세에 놓였던 黑으로서 대환영이다. 黑29로 막고 이하 39까지 숨쉴 겨를도 없는 절정. 한때 白40이 과했던 이수는 「나」로 끄덩는것이 정수. 이하 黑43까지 되고보니 무서운 혼전이다. 【二九】

張吉山

黃晳暎 作 <1731>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91)

「나는 아무래두 명이랑 을것만 같아요. 만신어머니두 그러셨어요. 우리가 갈때는 꼭 한날 한시가 될거예요」

그들은 밤이 시도록 며 지를 못하였다. 여환과 원향은 나란히 누워서 봉창이 완전히 어두워질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여환은 가만히 여보라고 아내를 불렀다. 원향은 피곤했는지 그의 한팔에서 잠들어 있어 그 말을 이미 들을수가 없었다.

여환이 금화 천불산에서 동안거(冬安居)를 지내고 온뒤부터 용화향도들의 세는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하였다. 금화수태사에서는 여전히 대성법주가 승병들을 조련시키고 있었으며, 천불산 동안거 때에는 운부는 오지 않았고 오진암 집회 때처럼 풍열스님이 주도하였다. 오진암 집회 때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경순과 김산이 빠졌다. 여환은 설우장에게서 다시 신서(神書)에 관하여 자세히 얻어 듣게 되었으니, 무진 입국의 뜻도 중요하지만 주상이 장씨 성 가진 궁인에게 빠져서 조정에 풍파가 일고 있다하며, 삼남에는 흉년 뒤끝의 역질로 관민이 경황이 없어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하였다. 여환과 계화가 칠성암에서 각 고을의 용화 향도들을 이끌어 갈재, 화회도 근기 일대의 삼화를 집을 중심으로 교세를 넓혀 나갔고, 식동이와 정원태는 그 미륵도의 내부에 견제의 계원을 점찍어 나갔다. 칠성암과 직결된 집회소는 역시 식동이네가 사는 시내비골(五十老洞)이었고 그 상화는 시동의 아버지인 김용은 노인이었다. 그리고 혜명의 살수계 중에 이네 식구였던 최영길(崔永吉)은 파주와 송도의 연락을 맡아서 칠성암에 드나들었는데 식동이와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 또한 천민의 소개로 들게된 노비 말립이가 거 노비들과 연계하는 일을 맡았다. 중옥이와 연길과 말립이 모두 가문 상 주제로 굳게 다져져 있었던 것이다. 연풍 삼리 은현촌에 사는 정대성(鄭大成)은 검계원이 되었으니 읍내의 정만일과는 갑은항 군의 대에 들었던 것이다. 식동이의 작은 삼촌 오경립(吳敬立)은 큰 삼촌 오계원(吳戒元)과 더불어 미륵도에 들었으나 병역을 가지고 있던 경험은 시동의 권유로 검계에 들게 되었다. 그들은 연천에 살았다. 이와같은 이들은 모두 미륵도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외에도 시내비골의 이용남, 임기동, 방승남, 방의천 등등은 연로한 신도들의 모임을 끌어 나갔다. 전성달(全成達)은 법회와 심배이 있는 삼념 홍성산 잘군사의 구월산 유민들과 더불어 미륵도를 이끌어 나가는 상좌가 되었으니 그는 해서의 오계손과 장길산 활빈도와 닿아 있었다.

땅끝에서 오다 <48>

「이제 그 차이를 한번 정리해 보시지요」

「……처음 영신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을 때…그녀의 음성 뒤로는 뭔가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읍니다. 그 전화를 받고 있을 때 저는 그녀의 음성에 몹시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소리같은 것은 들을 수도 없었지만, 두번째 통화하고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었읍니다. 첫번째의 통화의 분위기는 시끄러웠고, 그럼 두번째의 통화는 쥐죽은듯이 고요했읍니다. 물론 수화기를 든 사람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지만 분명히 수화기 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준호와 두 형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응접실 안을 휘둘러보고 있었다.

응접실 안에는 전축도, 라디오도, 텔레비전 수상기도 없었다. 전화기는 응접 세트의 테이블위에 놓여 있었다.

「혹시 침실의 사이드 테이블에는 전화기가 없읍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들은 문영신의 침실로 몰려갔다. 그리고 도어를 열었다. 형사가 더듬어서 전등을 켰다. 거기 문 영신의 침대가 있었다. 형사가 흘끔 준호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문 영신과 이 세원이 함께 자던 더블 베드였다. 준호는 애써 그베드를 바로 보지 않으려고 했다.

베드 옆 사이드 테이블위에는 역시 전화기가 놓여 있었고, 발치에는 텔레비전 수상기가 놓여 있었다. 14인치의 컬러였다. 문 영신은 이 외로운 아파트에서 저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기도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을것이었다.

「만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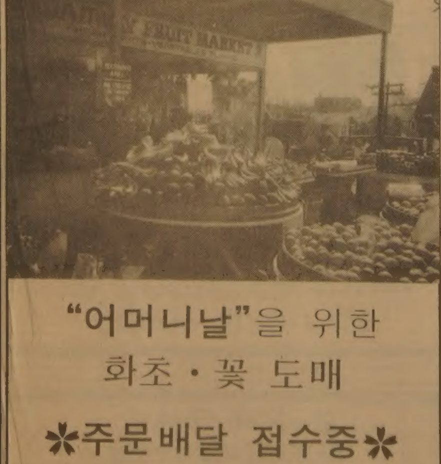
준호는 형사를 바라보았다.

「만일에 전화를 끊으라고 소리쳤던 사나이가 피해자였다면 그는 전화가 끊어진 직후에 살해되었어야 하므로 의사의 사망추정시간과 앞뒤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침실에서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소리를 낼수 있는 장치 저 텔레비전 수상기가 침실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그는 저 밖의 응접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읍니다」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일이 있읍니다. 전화가 걸려온 것은 밤 한시 였읍니다. 그 시간까지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국이 있었겠는가도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아니라면…먼젓번 전화는 이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걸려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추리가 가능합니다. 만일 그 추리가 성립된다면……그녀가 살인 현장에 그 시각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증인이 있는 셈이 됩니다. 전화를 끊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나이말입니다」

완강한 알리바이의 형사는 다른 형사에게 몇가지 지시를 하고 있었다. 아마도 지시를 받는 그 형사는 나이로보나 행동으로 보아 비교적 신참인 듯 했다.

「24일 1시 전후. 아니 그러니까 25일 01시야. 그 전후의 각 방송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조사해야겠어. 그리고 그 시간 전후에 이 집에서 일본동경으로 국제전화를 건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해야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영신의진술이야. 그녀는 아직도 뭔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것 같아」



"어머니날"을 위한

화초·꽃 도매

✽주문배달 접수중✽

— 친절봉사

— 저렴한 가격

☎ 465-8167

Mr. 곽 Mr. 김

장학생선발공고

지·덕·체를 겸비하려는 개인적인 수양의 길을 격려하고 사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위한 이같은 계속적인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하여 완인태권무도회는 다음과 같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1. 자 격 1)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좋은 학생. (평균B학점이상)
   2)1년이상 태권도를 수련한 현역수련생으로 앞으로 적어도 1년이상 소속도장에서 수련을 계속할 학생.
2. 모 집 인 원 1)1~4학년생 한국인4명, 외국인3명.
   2)5~8학년생 한국인2명, 외국인2명. 총인원11명
3. 장학금지급액 1)1~4학년생 개인당 $100
   2)5~8학년생 개인당 $150 총지급액 $1,300
4. 제 출 서 류 1)원서 (본회에서 요구에 따라 우송할 수 있음)
   2)현학년의 성적증명서
   3)태권도 수련기록표 및 소속도장사범의 추천서
   4)작문(1~2학년 150자, 3~4학년 300자, 5~8학년 500자)
5. 서류제출마감 1983년 6월10일까지 본회에 도착시킬것.
6. 발표 및 지급 수상자에게는 개별통지 및 신문지상에 발표하며 1983년 6월24일(토요일)에 지급함.
7. 서류제출처 및 연락처 1) 2281 Yonge St, Toronto M4P 2C8 Tel: 483-4002
   2) 1865 Lawrence Ave, E, Scarborough M1R 2Y3 Tel: 759-2500

비영리사단법인 완인태권무도회

사람을 찾습니다

성명 : 이창수

연령 : 만40세 정도

고향은 서울이며 독일에서 왔으며, 키는 작은 편. 왼손잡이로 기억함.

논산훈련소 입대동기인 노상배가 찾음.

연락처 : 이대환부동산

☎(B)535-1251

(R)536-4250

4만맹인 개안수술 기금을 위한 **성가와 한국가곡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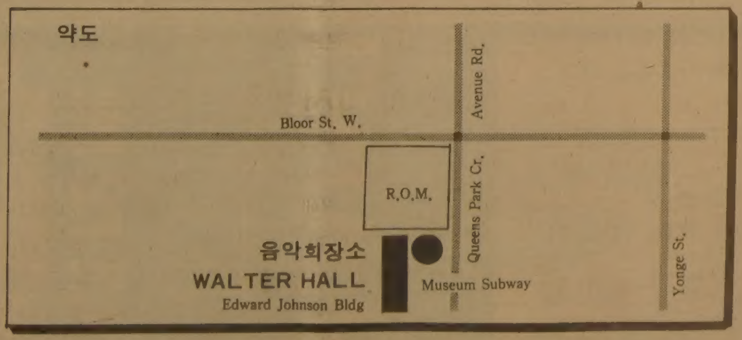
SOPRANO: KIM, CHA KYUNG CHARITY CONCERT

김자경 자선음악회

김자경 교수 • 김자경오페라단 단장 • 전 이대 음대학장 • 세계 각처 자선단체 음악회 지원

26 MAY, 1983 8:00 p.m.

장소 : WALTER HALL, Edward Johnson Bldg.
University of Toronto
(80 QUEENS PARK CRES., ROYAL ONTARIO MUSEUM 옆)



◆티켓 $15 ◆문의처 221－2045(사무실)

후원 : 주캐나다한국대사관
토론토한국일보사
이화여자대학교동문회

주최·온타리오 한국맹인후원회

15만맹인에게 복음을! 4만맹인형제에게 광명을!

한국일보

"南北교차승인 아직 빨라"

韓美外相합의 긴장緩和 길은 최고책임자對話뿐

"美, 北傀와 직접接觸 안한다" 「강력한 對韓防衛」 다시 確約

◇李外務, 댐代理와 安保논의 李範錫 외무장관이 29일 美국무성을방문, 케네드·댐차관보와 인사를 나누고있다。【워싱턴30日 UPI聯合=聯合】

【워싱턴=李文熙특파원】李範錫 외무장관은 29일남북교차승인은 남북한 긴장완화를위한 방법의 하나임엔 틀림없으나 현재의 주변여건으로보아 이문제에 대한 더이상의 거론은 시기상조이며 좀더 두고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날하오 한·미외상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측도 교차승인의 개념에 원칙적인 지지를 하면서도 이같은 시기상조라는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레이건행정부는 75년 키신저前국무장관에 의해 제의된 미·소·중·일 4개국의 남북한 교차승인문제가 최근다시 제기되었을때 교차승인에는 상호간의 단계적이고 비공식적인 접촉확대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왔으며 이날의 이같은 시기상조 견해표명은 슐츠국무장관의 중공방문을 계기로 재연됐던 교차승인문제에서 그 가능성에 대한주요관계국인 한·미양국이 명백한 한계를 명시한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국무성 회의실에서 있은 한·미외상회담에서李장관은 또한 남북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최고책임자간의 대화가 최선의 길임을 강조했고 그간 한국의 대화노력에 지지를표시해온 미측의 케네드·댐국무장관대리는 한국의 이러한 대화자세에 강력한지지를 재차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쌍방은 이날회담에서 한반도와동북아정세 특히 북한 정세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했고 특히 미국측은 강력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천명하면서 대외군사판매차관(FMS)의 조건개선과 한국의 방위산업지원을통해 한국의 헌신적인 방위노력에 적극지원을 계속할것임을 밝혔다.

또한 李장관은 한·미·일간의 협력논의에 언급, 현재 한·미간의 협력체제와 미·일간의 협력체제는 두줄기의 명백한 협력체제는 존재하나 그것을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체제라고 절대로 할수없는 것이라고말하고 최근 논의됐던 미국의 對북한자제와 관련, 미국측이 기존의 對북한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없으며 한국의 완전한 참여없는 북한과의 접촉은 절대없을것임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남미에대한 미국의 지원계속의 필요성과 중동평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설명했으며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자유화에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 한국측은 무역자유화의원칙에 찬동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담후 미국무성측도 같은내용의 회담결과를 밝히면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관해서도 간략한 언급이 있었으며 미국측은 金大中석방, 정치해금조치등 최근 한국정부의 일련의조치에 크게 고무되고 있음을 답변했다고 밝혔다.

補充役대상 擴大

戰公傷가족·生計곤란등 포함

兵役法개정안

高校生도 徵兵검사 延期혜택

병무청은 30일 생계가 곤란하거나 전사·전공상자의 직계 가족인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으로 편입토록하고 고교재학생에도 징병검사 연기혜택을 주는것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및 그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다.

개정안은 보충역편입대상에 ▲본인이 아니면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아버지나 형제 가운데 전사자나 전공상자가 있는경우 ▲주거지역이 해안등 취약농어촌인장정등을 새로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징병검사 연기혜택을 앞으로 고교재학생에도 주도록 했으며 현역복무자를 의가사(依家事)전역시킬때 최소한 6개월 복무후 제대시킨다는 조항을 고쳐 전역사유 발생즉시 전역시키도록 했다.

◇全斗煥대통령이 中文단지를 시찰한뒤 和順港에들러 주변환경을 살피고있다。

"지도층 遵法 앞장을"

全대통령 「法의날」 致辭

全斗煥대통령은 30일『우리민족은 오랜역사를 통해 축적해온 높은 문화수준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산업화와 都市化에 적응할수 있는 질서의식과 遵法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경향이 없지 않다』고 지적, 『따라서 우리는 근대적인 法治질서를 수용하고 체질화하기 위한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 나가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0회 「法의날」 기념식에서 金相浹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치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특히 법을 운용하는 공직자는 법정신에 투철해 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하며, 사회지도층은 遵法정신을 솔선해서 실천해 法治사회의 기틀이 이땅에 뿌리내릴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 『국민 전체의 편익을 위해서 보다는 통치자개인의 임의대로 법이 운용돼온경우가 적지않았던 지난날의 경험때문에 법을 적당히어겨도 무방하다는 그릇된인식을 갖게된 경향도 없지않다』고지적, 『그러나 이제 법을輕視하거나 법을 교묘히 악용하는일이 통용되던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며, 따라서 遵法정신을생활화해 법의이념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구현해나가는 일은 선진조국의 창조와직결되는 시급한과제가 아닐수없는것』이라고말했다.

濟州개발 民資유치

空港~中文간 高速化도로를

全斗煥대통령 지시

【濟州=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30일상오 中文단지등 濟州道 관광개발사업현장을 약4시간30분동안 돌아보고 『관광개발은 民資를 유치하고 외국과의 合作을 통해 외국인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도록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6시40분 숙소를 떠나 濟州道 남부의 中文관광단지에 들러 十東錫 濟州관광개발공사사장으로부터中文단지 개발계획을 보고받은뒤 이같이 지시하고 『육지사람들이 濟州道에 땅을사놓고 개발하지 않고 있는 곳은 道民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활용할수 있게 賃貸해 주도록 하고 그밖에 개발않고있는 땅에 대해서는 空閑地稅를 물리도록 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 『濟州공항에서 곧바로 中文단지까지 20~30분내에 갈수있는고속화도로의 건설을 검토해보는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IPU 한국대표에 全대통령 祝電보내

全斗煥대통령은 29일하오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의회연맹(IPU) 이사회에서 제70차 총회의 서울개최가 확정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한국대표단에게 電文을 보내 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全대통령 어제歸京

全斗煥대통령은 1泊2日간에 걸친 濟州道순시를 마치고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30일하오歸京했다.

'83미스·서울選拔대회

오늘 下午2시 本社 13층 송현클럽

5월末께 또 召集

임시國會 폐회 國會法·地自制등 다시 절충

제116회 임시국회는 30일상오 본회의를 열고 사회淨化운동 조직 육성법안등 4개법안과 3개동의안및 韓·英修交 1백주년을맞아 英國議會에 보내는 결의안등 8개議案을처리한뒤 20일간의 會期를마치고 폐회했다.

국회는 오는 5월말이나 6월초 한차례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 여야간에 爭點이 되고 있는 국회법개정, 지방자치제실시문제등과 정부제출 각종법률안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회법개정안등 정치議案을 비롯, 내무·문교부장관解任권고결의안, 경찰관의 고문치사사건, 油價조정 및 경제운용, 再修正문제, 改憲說의 眞否, 三寶證券사건, 趙世衡탈주사건, 國費유학생採點착오사건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정치議案의 처리문제는 아무런 실질적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계속 계류, 오는 4일 3黨3役회담등을 통해 與野가 계속 절충할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과 住宅債券발행동의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淨化육성法등 4개法案통과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안=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회운동조직에 出捐金또는 보조금을지급할수 있도록하고 사회운동조직에대해 國共有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케 할수있도록함.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법 개정안=仁川支院은 仁川地法으로, 馬山支院은 馬山地法으로 승격시키고 錦山支院을 폐지하며 釜山地法에 東部支院을 신설.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안=복지시설 이용자가 비용부담능력이 있게된경우 본인 또는 그부양의무자로부터 비용을 받을수있는근거를 마련.

▲환경汚染방지 事業團법안=사업단이 환경오염방지사업과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융자, 환경오염으로인한 피해구제 사업등을 벌이도록함.

▲83년도 住宅債券발행 변경동의안=아파트請約에 債券入札制가 도입됨에따라 금년도 2천4백억원이내로추가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年利 5%이하, 償還기간은 20년으로함.

▲외교관등 국제적보호인물에대한 범죄의 방지및 처벌에관한 協約가입동의안=국가원수 외교관등 국제적 보호인물에대한 납치및 살인등의 제반테러방지를 목적으로하는 協約에 가입 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동참여.

SHANGHAI
레스토랑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334 SPADINA AVE.
596-7311

프렘泰首相 再任命

【방콕AP聯合=聯合】프렘·틴술라논드 현 태국수상이 30일하오(현지시간) 태국새 내각의 차기수상에 공식임명될것이라고 고위 정치소식통들이 말했다.

태국방송은 이날 정오뉴스에서 부미볼국왕이 17차 내각의 수상임명에관한 협의를 갖기위해 차루부트르·루앙수안하원의장이 신청한 알현을 허락했다고보도했다.

社会漫評

뭔진 잘 모르겠지만 北傀를 이겼다니 만세…

地平線

나라이름처럼 국가의 상징도 모두 다르다。나라사랑의 뜻은 국기, 국가와 국화로 표현된다。국기를 바라보는 마음은 경건하다。국가를 부르거나 들을땐 가슴이 뭉클해 진다。나라꽃을 바라보면서 조국의 아름다움을 그린다。우리 태극기와 애국가엔 남다른 수난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구한말의 憂國에서 日帝를 살아온 愛國의 열정이 담겨졌다。그래서 더 소중하다。▼애국가 가사는 4절로 구성 되었다。그러나 막상 4절을 계속 부르려면 곤혹감에 부딪칠 사람도 있을 것이다。뜻 모르고 넘어가는 가사의 단어도 혹시 있지 않을까…。「보우」(保佑·보살피어도와줌)「공활」(空豁·매우 넓음) 같은 말뜻은 낯설수도 있음을줄 안다。우리것이라고 너무쉽게 여기다보면 그 뜻조차 가볍게 넘겨버리는 일이 없지 않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나라사랑하는 노래뜻을 새겨가며 부르고 듣는것이 진짜 애국이다。한동안 잠잠하던 「새국가 제정」논의가 다시 나왔다。(한국일보 4월30일자 10면) 지금 애국가의 가사는 감상적이고 가락도 북가리아민요와 비슷하니, 웅대한 민족기상을 나타낼 새 국가를 만들자는 의견이다。중국의 음양설을 바탕으로 한 태극기를 고치자는 주장과 함께 새삼스런 發意는 아니다。각계 의견은 벌써 나올만큼 나올을 안다。그래서 생각을 한층 깊이 다듬어야겠다。▼지난70년대 두차례 올림픽을 치르는 사이에 10여개국이 국가를 새로 고쳤다。우리 애국가가 올림픽 무대에서 울려 퍼진것은 아직 몬트리올 대회뿐이다。그렇지만 지난해 아시안 게임에서 터뜨린 애국가의 합성은 새삼 주먹을 불끈 쥐게 해준다。애국가는 지금까지 틀림없는「코리아의 상징」이다。▼애국가를 둘러싼 논의는 자라나는 세대의 국가관교육에 미칠영향도 세심하게 고려해봄직하다。자칫 國歌에대한 의문이 싹틀지 모를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역사의 전진은 전통의 확립을 외면할 수 없다。통일의 그날이오면 분명 민족사의 새章이 열릴 것이다。그때 가서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검토될만하다。찬·반을 떠나 이문제는「愼重」이 앞서가기를 바랄뿐이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 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김희갑, 서영춘, 구봉서, 배삼룡을 거쳐 현재 한국에서 수년간 최고 코메디안의 정상을 고수하고 있는 "이 주 일"
-1982년도 드디어 정상가수 조용필을 물리치고 MBC가요대상을 차지한 "이 용"
-수많은 카셀으로 우리에게 친근한 메들리의 여왕 "김 연 자"
-독특한 몸짓과 여자가수로선 최고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이 은 하"

□일자 : 5월13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 토론토대학 CONVOCATION HALL
(칼리지×세인트·죠지 Kings College Circle)
콘보케이션 홀

쇼

A 석 : $15
B 석 : $12
C 석 : $10

표판매저·각식품점및 동궁, 아리랑식당, 한국관, 남강

모국연예인 초청

한인민족상 기금모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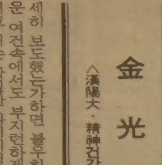
주최:
토론토한국일보사
한인민족상위원회

폭발적인 인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침 한때

出勤길 발이 무겁다

밝고 신나는 뉴스는 어디로 갔는가



金光日 〈漢陽大·精神건강硏 소장〉

요한·슈트라우스 왈츠「아침신문」을 들으며 출근길에 나서는 발걸음은 상쾌하기 이를 데 없다. 어두웠던 마음도 한결 밝아지는 것이다.

아침신문을 대하는 심정은 슈트라우스의 왈츠만큼이나 밝고 신나는 소식에 접하고 싶은 것인데 그 기대가 매양 실망과 분노로 바뀌다보면 TV와 신문보기가 겁이나게 된다. 신문제목을 읽다가 황급히 애들이 볼까봐 숨기는 때도 있다. 단하루도 안보고는 견디지 못하는 데도 지난 주의 신문은 그럴 수 밖에 없었다. 밝은 이야기라곤 하나도 없고 보험금을 타려고 남편을 독살한 여인의 이야기가 연일 지면의 반을 차지했는가 하면 이를 전 사회면에는 전부가 살인사건만으로 가득차 있었다.

정부를 둔 여인의 남편독살사건, 한살밖에 안되는 아기와 그 어머니를 칼로 찔러죽이고 보석을 털어간 사건, 외국인을 목졸라 죽이고 돈을 뺏어간 사건,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은행에서 7천2백만원을 날치기당한 사건이 뒤를 이었다. 이렇듯 전율할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던 주간도 내기억에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꽉메운 殺人사건

보험금을 노려 남편을 독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金여인의 모습을 신문은 크게 파헤쳐놓았다. 밝고 선량한 옛모습과 잔인하고 뻔뻔스런 사건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나란히 신문에 실었고 열한살짜리 아들을 교사해서 남편을 독살하는 그녀의 행적을 자세히 보도했는가하면 불우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지런하게 살아보려고 애쓴 착실한 과거의 행적도 소개하였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한 인간속에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지킬박사와 하이드를 연상했던 것이다.

사람은 선하기만한 것도 아니고 악하기만한 것도 아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선량한 면이 있게 마련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이라도 악한 면이 마음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법이다. 선한사람이 따로있고 악한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른다.

지킬博士와 하이드

도대체 무엇이 선량한 지킬박사를 흉악한 하이드로 바꾸어놓았을까? 탐욕이라고들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탐욕일까. 요사이는 황금만능시대이니 돈에 대한 탐욕이 문제될것이다. 지난주의 끔찍한 범죄들도 모두 돈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돈이란 무엇일까.

어느음식점 여종업원들사이에서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잡담이 벌어졌다.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돈은 잔인하다는 결론이었다. 돈은 필요하고 고마운 것이지만 지킬박사를 하이드로 변화시키는 것이 돈이라고 한다면 돈은 분명 잔인한 물건이다. 몇천원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부모나 남편을 죽일 수도있다. 빚에 쪼들리다보면 강도로 나설수도 있고 자살 할 수도 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비굴한 복종을 해야하고 양심에 꺼리는 일도 해내야할 때도 있다. 돈 몇푼 받고 법정에서 위증을 서주는 직업인이 있는가하면 돈때문에 몸을 파는 여인도 있다. 사기를 치거나 소매치기를 해서 남을 울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밀수를해서 나라를 망치는 사람도 있다.

돈이란 무엇인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억울해지는데 필요이상으로 돈이 많으면 그 돈을 빼앗길까봐 겁을 먹는다. 돈은 없어도 걱정이요, 많아도 걱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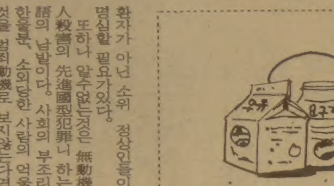
없는 사람은 가지려고 애쓰고 주체할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번 사람은 더많이 소유하려고 온갖수단을 다 동원한다. 돈은 사람을 죽이기도하고 살리기도한다. 돈은 사람사이에 원한을 만들기도 하고 친구를 멀리하게도 만들고 분단의 씨를 심기도 한다. 그래서 돈은 잔인한 것이리라.

그러나 돈은 좋은것이기도 하다. 돈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돈이 있으면 잘살수도 있고 세상에 보람된 일도 얼마든지 할수있다. 학문의 발달도, 사회의 발전도, 문화의 창달도 다 돈을 필요로 한는것이 아닌가. 돈은 자비로울수도 있고 잔인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돈은 잔인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일까.

오래전의 일인데 우리병원 관리소장에게 관리과란 필하는 곳이냐고 물었다. 물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또 각부서에 공평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감독조정하는 일을하는 곳이라고 했다. 우리사회에도 돈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관리감독하는 장치가 있었더라면 아마도 돈은잔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돈때문에 벌어지는 잔인한 사건도 적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사회가 先進祖國을 눈앞에 두고 그리로 달려가고 있다고한다. 先進祖國이 되려면 여러 여건이 구비되어야 하겠지만 돈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많은상황에서는 先進祖國을 아무리 외쳐봐도 모래위에 세운 城일수밖에 없다. 先進國의 힘은 국민의 생활수준이 공평하게 향상된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너무 착한사람들

지난주 살인사건에 관한 기사들을 읽고서 염려되는 점들이 몇가지 더있었다. 이상한 범죄사건이 일어날때마다 정신병환자의 소행일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사회의 통념에 저항감을 느낀다. 실상 정신병환자만큼이나 착한 사람도 드물다. 너무 착해서 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마치 무서운 범죄는 그들의 소행인양 생각해버리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심스럽다. 정신병환자의 착한마음을 세상사람들이 다 갖고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평안한세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문화를 망치고 대량 살인을한 사람들은 정신병환자가 아닌 소위 정상인들이었음을 명심할 필요가있다.



또하나 알수없는것은 無動機不特定人殺害의 先進國型犯罪니 하는 新造語의 남발이다. 사회의 부조리를 향한울분, 소외당한 사람의 억울함같은 것을 범죄動機로 보지않는다면 모르되 범죄에 無動機란 있을수없는 일이다. 어떤 사회적 진실을 無動機란 단어를 가지고 은폐하는 결과마저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되기도하고 또 그런 범죄가 선진국에서 주로 일어나는지도 의문이다.

설사 그렇다치더라도 그런 범죄가 우리네 사회에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네도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는증거로 삼으려는듯한 인상마저 풍겨 개운치않은 여운을 남긴다.

몇몇선진국이 공해에 시달리고있는데 이땅에도 공해가 심각해졌으니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이 다된것처럼 착각하던것과 흡사하다. 어쩌다 괴상한 범죄와 공해가 선진국의 징표로 대두되었는지 알수가 없다. 또 그런 것들이나 비교해서 우리가 선진국임을 애써 표현하려는 눈치가 보이는것 같아 식상한다.

4월은 정말 잔인했다. 범죄가 잔인했기때문에 신문은 따라서 잔인해질수밖에 없었다. 보도를듣고보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잔인해질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잔인했다.

그 잔인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수는 없겠지만 아침신문들이 왈츠를 출만큼의 신나는 소식들을 전해주는 세월이 빨리오기를 기원해본다.

極限 피했지만「實效」엔 아쉬움

—이슈·舌戰·攻防도 많았던 임시國會 결산

「改憲說」·「三寶」등으로 한때 긴장
與、과열예상「보이지않는 示威」도

政治部 좌담

『잘된것은 다잘했다』『미흡했다』는 의원들의 自足과 아쉬움이 엇갈린 4월 임시국회에 대한 가장 올바른 評價는 국민들만이 내릴수있을것같다. 사진은 30일상오 임시국회가 幕을내리자 작별과 함께 승용차를 기다리는 의원들의 모습.

—제116회 임시국회가 무사히 끝났군요. 常委활동을 벌인 막바지단계에서는 연일 야간회의가 계속되어 기자들도 매일밤을 새우다시피했는데.

—이슈도 많고 말도 많고 舌戰과 攻防도 많고 그래서 회의도 밤늦게까지길어졌나 봅니다.

—與黨측인 民正黨이 이번국회가 본회의와 상임위활동을통해 國政전반에관해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던 문젯점들을 진지하게 규명, 심의하고 對話정치의 풍토를 다진 내실있는 국회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반면 民韓·국민등 野黨측은 국회법개정안, 내무·문교장관해임권고결의안등 政治議案들이 多數黨의 횡포로 뜻을 이루지못했다면서 對話정치가 어려운 고비에 이르렀다고 상반된 評을 하고 있더군요.

—이같은 엇갈린 평가속에 이번국회가 표면상으로는 과거와같은 極限대립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對話로서 생산성있는 實效를 거두게 있느냐 하는 물음엔 모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국회는 다음 總選을 앞두고있는 11代국회의 후반부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與野모두가 긴장해 있었던게 사실이지요.

—우선 야당의 경우 政治공세를 통해 정부에 批政과 잇단 사건사고들을 클로즈업시켜 「바람」을 일으켜보려는 계산 이었고 이에맞서 與黨측은 어떻게든지 「바람」을 잠재워 조용한심의로 끝내려는 작전이었지요.

—與野의 격돌이 바람직하다고는 할수없겠지만 이번국회는 격돌의 소지가많았던 셈이지요. 소위 4월처리時限이었던 국회법개정문제등 정치의안과 잇단 大型事故등 硬塞化의 가능성은 충분했었읍니다.

—당초부터 過熱현상을 경계해온 여당측이 「보이지않는」示威를했고 이를 의식한 野黨의 지휘부도 『맞부딪쳐봤자 얻을게 무엇있겠느냐』는 與野간에 일종의 共感帶가 형성, 조용히 끝난 느낌입니다만 특히 야당측의 少壯그룹들을 중심으로 自省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이 됩니다.

—이번국회가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런대로 무난했었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만 19일 朴完圭의원(民韓)의 對정부질문때 「의제외 발언」시비로 蔡의장이 발언중지와함께 停會를 선언했던것과 내무·문교장관해임권고결의안처리협상때문에 常委를 2시간이나 지연시킨것등은 역시 경험未熟이 낳은 실수라고 할수있겠지요.

—이번국회는 회기가 20일밖에 안되었다는 점에서볼때 이슈는 과히 메거톤級에다 양적인면에서도 다른 해의 정기국회못지않을 많은 양이었지요.

—그렇습니다. 韓一合纖 金根祖이사고문치사사건과 함께 財閥들의 비업무용토지 再買入사건, 與野총무간에 합의했던 4월末처리時限의 국회법개정안과 地自制등 政治議案, 또 民韓黨이 제출한盧泰愚내무·李奎浩문교장관 해임권고결의안, 三寶證券사건, 油價조정문제, 그리고 그동안 밑도끝도없이 끈덕지게 나돌던 改憲說등이 그것이지요.

—특히 이번국회회기중에 大盜趙世衡탈주사건과 피해자및 피해품을 둘러싼 갖가지 루머와 大邱디스코클럽화재로 많은 청소년이 燒死한 사건에 乙支병원 남편毒殺사건등은 金相浹총리의 탄식처럼『조용하지않은봄』이 되고 말았지요.

—이가운데 국회법개정문제는 비록 당초처리時限이던 4월말의 고비를 일단넘겨 오는 4일의 3黨3役모임에 넘겨져 對話정치란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수있을것 같아요.

—그러나 큰관심을 모았던 油價문제는 특별히 商工·經科연석회의까지 열었지만 소위「3·7」制에 대한 정부측의 의지가「亂攻不落의 要塞」라는점만 재확인한채 끝난느낌이라 아쉬운감이 있더군요.

—또 이번국회의 대부분의 핫이슈들이 진상에대한 정부발표가 미흡한탓인지 루머性이 강했다고나 할까요. 우선 三寶證券 사건의 경우 작년연말부터 證券街에서는「제2의어음사건」「권력층과관계」云云하는소문이나돌고있었는데도관계당국은 이에대해 一言半句의 해명이나 설명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일부여당측의원들 조차도『정부가떳떳하게 해명,국민의궁금증을 풀어야지 왜「쉬쉬」만 계속해 왔는지 모르겠다』고 불평 하더군요.

—三寶증권사건못지않게 大盜사건도 말이 많았읍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해품과 관련, 시중엔 별아별루머가 나돌았구요. 심지어는趙의 범행을 義盜로까지 승화하는여론이일자 정부측도 파렴치犯을 비호하는듯한 世態를 비판하였지 루머를 잠재우는 시원한 설명은 부족했던게 아니냐는 얘기 입니다.

—改憲說만해도 그래요. 金총리나 통일원장관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서 통일헌법의 준비과정서 訛傳된것으로 이는 전혀 事實無根임을 밝혔읍니다만 통일헌법논의가 무엇때문에 의혹을 샀는지 모르겠다고 일부의원들은 말하더군요.

—야당一角에서는 그동안 禁忌로 돼왔던 改憲說에 관해「無根」답변을 받아낸것은 큰 수확이라고하더군요.

—이번 국회의 議案중의 하나는 民韓黨이 냈던 盧내무·李문교장관의 해임권고결의안이었던것 같아요.

—民正黨은 각료해임안은 전체의원의 3분의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한다는 헌법99조를 들어 그밖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될수 없다고 違憲·違法性을 제기했지요.

—이에 民韓黨은「의원20人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할수있는 일반의안」이라고 합법성을 주장했는데 사실은 民正 民韓 양당이 모두 헌법학자들을 만나본 결과 違法이라는 의견을 들었다는 겁니다.

—「의제不成立」의 논리를 전개하던 民正黨은 政局의硬化를 막는다는 명분에서 결국 본회의에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운영위에서 의제로 받아들이고 말았지요.

—常委중에서는 역시 越尺箇의 이슈가 많은 內務 財務 法司 文敎委가 가장 활발했지요. 가장 熱氣가 많았던곳이 내무위였던 것 같아요. 우선 金根祖씨 고문치사사건이 가장 톤이높았읍니다.

—野黨측은 지난정기국회때 尹노파피살사건과 여대생피살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던 사람들이 고문을당했다는 주장과함께 법원서 無罪판결을 받았고 고문시비에 대해 내무장관이『다시는 수사중에 고문이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들은지 몇개월만에 고문致死사건이 났다고 猛攻을 퍼부었지요.

—고문수사는 法司委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었지요.

—裵命仁법무장관은 사실 그동안 고문수사에 대해 적극적인 근절의지를보이지못한 게 사실이었다고 시인하면서 고문근절을 소신으로밀고 나가겠다고강력한의지를 보였읍니다.

—이번 내무위에서는 趙世衡체포때「독안에든쥐」에게 과연 총기를 발사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야당의원들 질문에 朴市警국장은 『총을 쏠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가 공세가 심해지자 李海龜치안본부장이『과잉방어적이었다』고 잘못을 시인, 시경국장으로 하여금 발언을취소하는 寸劇도 있었어요.

—法司委에서도 총기사용은 관례가 안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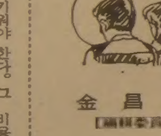
—趙世衡사건의 경우 趙를 義盜라고보는 일부풍조에대해 여야의원모두가 이사회의 病理를 개탄했어요.

—趙正濟의원(民正)은 『도주하는게 옳다는게 아니지만 도주할수 밖에 없었던게아니냐』면서 22萬弗해외도피사건의 1년刑量과 단순절도인 趙의 무기징역이라는 刑量을 지적했지요.

【정리=盧鐘煥·金永煥기자】

메아리

定型



金昌悅

말썽에는 定型이 있다. 그 自初之終은 언제나 비슷하다. 같은 경위를 밟으며, 말썽이 일고, 잊혀지고, 다시 인다.

그 定型은 대강 3박자다.

음악으로 말하면 먼저 前奏가 있다. 그 가락을 귀담아 들었다면 말썽은 날만해서 났음을 알수가 있다.

다음의 主題曲은 가히 폭발적이다. 귀를 찢는 굉음을 낸다.

그 소리와 함께 메들리 (接續曲·混聲曲)가 인다. 제가끔 한마디, 저마다 사후대책을내놓아 제법 大合唱을 이루는 후렴이지만, 그것은 메들리의 또 다른뜻인「雜記」나 같다. 그 후렴은 變奏를 거듭하면서 잦아 들고, 말썽의되풀이를 예비한다.

지난번大邱의 디스코火災가 바로 3박자 말썽의 한 典型이다.

먼저 그「前奏」. 다음은 신문에 보인 그 曲名이다.

『未成年출입업소 刑事입건』(3월5일字한국일보11면)

『警察, 遊興業所 전면단속 未成年 出入시킨 業主는 拘束』(1월15일字중앙일보11면)

『遊興業所 필요땐 住民證확인 文敎部, 中高生탈선 막으려』(1월25일字동아일보11면)

이 前奏曲의 의미를 길게 설명할 것은 없다. 청소년과 유흥업소의 문제는 이미 예고되어있다.

大邱火災는 이처럼 예고된 主題의 폭발이며, 前奏曲의 표방이 모두 거짓말이란 증거다.

참사가 난 다음 날 하룻사이 防火점검에서 서울의 유흥업소 55군데의 업주가 입건됐다.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업주가 무더기로 잡혀 들어 갔다. 유흥업소의 영업을 子正까지로 제한한다는 시책도 나왔다. 유흥업소 업주에게 출입자의 住民證확인을 義務化한다는말도 들린다. 定型대로의 메들리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렴의 뜻은 잠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번개같은 「事後團束」의성과는 오히려 그사이 「事前團束」이 얼마나 소홀했던가를 보여준다.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소방시설이 미비하면 참사는 子正전에라도난다. 도망갈데 없는 밀실에서 불이나면, 住民證이있는 어른이라도 타죽는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출입거부는, 본디부터 유흥업주에게 지워진 法的인 義務다. 새삼 노래할것도 없다.

따지고 보면 제법 종합적이고 강력한듯한 시책내용에 실속이 없다. 그것은 主題를 벗어난 變奏나 같다. 핫점을 잃었다는 인상도 없지않다.

그러면, 이후렴의 초점은 무엇이어야할까.

여기 그해답을주는 寓話가 있다. 그옛날「이솝 이야기」가 아니라「核의 寓話」다.

核戰略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의 안목은 상대방 大陸間彈道彈(ICBM)의파괴다. 상대방은이에대비하여 彈道彈을 분산배치하고, 견고한 사일로로 방호한다. 이들을 찾아 부숴버릴 파괴력이 核戰略의 큰 기둥인것이다.

이 경우, 파괴력을 계산하는 公式이 재미있다. 그것은 彈道彈에 대한 彈頭1발의 파괴력은 폭발력의 3분의2제곱에 比例하며, 命中精度(발사된 彈頭의 半數가 命中하는 地域(圓)의 제곱에 反比例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폭발력을 3배키웠을때의 파괴력 증가는 2배가 채 못된다. 그러나 命中精度를 3배 높이면, 파괴력은 그 제곱—9배로 늘어 난다.

그런데 폭발력의 強度를 늘리기는 비교적 수월하다고 이른다. 대신 로키트·發射臺·사일로등을 덩달아 키워야 한다.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반면, 命中精度를 높이기는 어려우나, 彈頭를 小型化하여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다. 核戰略家가 어느쪽을 택할지는 뻔하다.

예기가 거창한데로 흘렀지만, 모든 시책의 효과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强度와 精度를 겸비하되, 精度가 더 중요하다.

어떤 시책이「종합적」이려다 羅列에 그치고,「強力」하려다 겨냥을 잃었을 때, 그 효과는 보잘것이 없고, 社會的인 부담만 는다.

大邱火災에서 드러난 문제의 초점은, 法대로하지 않은 것이다. 法에 따라 허가 할수 없는 곳에 디스코·클럽을 허가하고, 法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추게 하는 일을 게을리했으며, 法에 따라 미성년자의 입장을 막고자한 흔적이 없다. 法을 지키지 않은 업자도 문제지만, 法을눈감은 행정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무슨 말썽이건, 그 主題曲은 이점에서 공통된다. 말썽이 날적마다 잡혀들어 가는 공무원이 있음은 이를 말함이다.

뒤집어 말하면 말썽은 法이 없어서 나는것이 아니란 얘기다. 法을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곧 말썽인 것이다.

그렇다면 말썽을 수습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시책의 겨냥이 어디 있어야할지는 自明하다. 먼저 행정이 法을지키고 法을 충실하게 집행하며, 그바탕위에서 국민이 法을 지키게하는 것이다. 大邱火災의후렴에서 빠뜨린主題가 바로그같은결의와 노력의표시인것이다.

오늘, 4월을 보낸 첫날에「法의날」을 맞는다. 4월의 말썽을 이 지켜봤다면, 행정이 먼저 이날의 함축을 되씹을 일이다.

동아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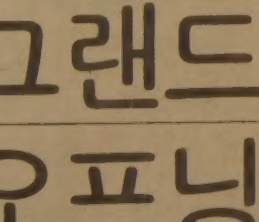
초대합니다 5월9일

그랜드 오프닝

드디어 5월8일(일요일) 오후7시 교민 여러분을 모시고 개업식을 갖고자 하오니 많이 왕림하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통지는 안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송종호·김홍배 드림



5568 YONGE ST.

☎ (B) 222-8989 (R) 663-1339 Mr. 김 • (R) 881-6431 Mr. 송

Springwood Homes inc.

당신도 후로리다 휴양지에 별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래 초개된 COTTON-WOOD MODEL HOUSE는 Golf Courses, 학교, 쇼핑센터, 교회, 공원에 인접하고 WALT DISNEY WORLD까지 1시간거리, 그리고 해변에서 10분거리의 멕시코만에 있는 Clear Water 근처의 SPRING HILL COMMUNITY에 건축되고 있는 10가지 Model의 별장중 하나입니다.

The Cottonwood
* $21,000 (U.S. funds)

Terms min. 20% down payment

이와 같은 중앙식 냉난방의 2 Bed Room Detached House를 여러분의 구입 선택하는 땅에 마련하실 수 있읍니다.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12페이지의 소개 팜플릿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읍니다.

현지답사와 년중 사용치 않는 동안의 Rental Service를 알선해 드리겠읍니다.

SANG ROCK INC. 일동 이영웅, P. ENG., 장북성, P. ENG., 조규열, 김동천, 권용칠, 안영운

TEL : 661-3124

銀行창구서 巨額수표 盜難

7천2백만원 産銀직원 信託銀에 入金순간

치밀하게 계획된 犯行

前職 은행원·前科者 행적搜査

키 1m65cm 베이지색 紳士服 입은 50代남자

길건너 産銀본점서 10분만에 3천만원 빼내

29일하오 3시35분께 서울中區 明洞59의5 서울신탁은행 본점에서 50대남자가 7천2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훔쳐 발행은행인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이중3천만원을 현금으로인출, 도주했다.

범인은 이날 수표를훔친뒤 10분만인 3시45분께 50여m거리인 길건너 산업은행(서울中區 南大門路2가140)에서 3천만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4천2백만원은 자기앞 수표로 끊었는데 수표는 미도파옆인中區小公洞28 永豊실업건물앞에 버려 이날하오7시께 행인 李炳宇씨(42·慶南개발진흥이사)가주워 습득물로 경찰에신고했다.

도난수표(수표번호 다0006272)는산업은행이 경기富川의 京畿화학에 기계제작자금으로 송금하려던 2천만원이상의 고액수표 6장중 1장으로 산업은행은 富川에 지점이 없어 신탁은행 富川지점의 온라인을 통해 송금하려던 것이었다.

이날 수표를 운반한 산은 섬유화학부 朴종희씨(22·서울江南區驛三1洞648의2)에 의하면 하오 2시30분께 본점 영업과에서 4억1천1백만원을 수표로 발급받아 朝興은행 乙支路지점에 8천4백만원, 중소기업은행 본점에 2천7백만원을 각각 입금시킨뒤 나머지 수표6장(3억원)을 가지고 신탁은행 본점에 갔었다는 것.

朴씨는 신탁은행영업1부 온라인 취급창구와에서 입금전표를 기입하여 수표는 윗부분에, 전표는 뒷부분에 붙여 접수대(臺)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있었는데 이때 서울말씨를 쓰는 45~50세가량의 땅땅한 남자가 다가와『뒤로 물러나앉아 있으라』고해 은행직원인줄알고 3m가량 물러섰다는 것. 朴씨는 10분정도 대기했으나 소식이없어 확인결과 창구여행원이『수표를 받지 못했다』고 말해 산은영업과에 찾아와 이 수표를 내주었는가를 확인하기위해 2차례 연락을 했으나 이미 현금을 인출해간 뒤였다.

산은 본점에간 범인은 수표뒷면에「서울中區南大門路5가179 大宗기업 朴鎭圭」라고 이서(裏書)하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수표를 접수한 산은1번창구 직원 沈종엽씨(26·여)는 지불결제를 하기위해 출납반 주임朴光淳씨에게 넘겼다. 朴씨가 고액권 사정이 좋지않다며『부피가많은데 어떻게 가져가겠느냐』고 묻자 범인은『종업원 임금을 줘야한다. 밖에 차가대기중』이라며 1만원권 1천만원, 1천원권 2천만원등 현금3천만원과 4천2백만원짜리 수표를 지급받아 현금은 은행에서 내준 부대에 담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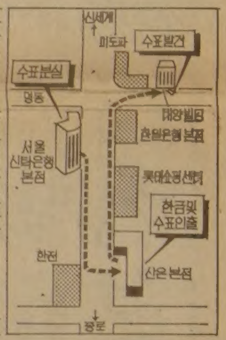
한편 경찰은 이사건이 내부사정을잘아는사람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행인것으로 보고 전직은행원, 최근 퇴직한 기업체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펴는한편 동일수법전과자들의 최근행적에대해 아울러 조사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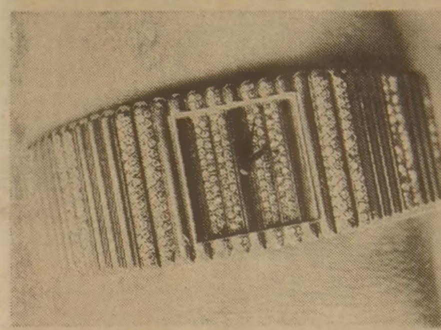
경찰이 이같이 보는 이유는▲범인이 산업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때 돈을 싸가지고갈 보자기와 도장을 미리 준비했으며▲이서(裏書)한 주소성명이 모두 가짜이고▲7천2백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바꿔갈경우 의심을 사게된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었다는점등이다.

경찰은 또 범인이 현금을 인출할때『밖에 차가대기해있다』고 말한점으로 미루어 미리 대기시켜둔차량을 타고 롯데쇼핑→朝鮮호텔쪽으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 2명이상의 공범이 있을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있다. 이와함께 베이지색에 줄무늬신사복을 입은 1m65cm가량의 서울말씨를 쓰는 땅땅한 체격의 범인을 본 목격자를 찾고있다.

한편 범인은 현금을 인출할때「朴昌圭」라고 이서하고 주민등록번호도「3 60237」로 적었으나 모두 거짓인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표에서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려했으나 은행관계자의 지문이 많이묻어있어 채취에 실패했다.





◇1억짜리 피아제 時計 싯가1억원짜리 초호화판 스위스제 피아제 손목시계. 시계줄뿐만아니라 문자판과 케이스에까지 모두 9백개의 다이어먼드가 박혀있는 수제품이다.

20代 조사중逃走

피아제時計 전당잡히려다 잡힌

재일동포가 盜難당한 장물

장물로 밝혀진 싯가1억원짜리 피아제 손목시계를 저당잡히려던 절도용의자가 전당포직원의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으나 감시소홀로 조사를받던중달아났다.

29일 하오4시40분께 서울中區明洞2街 J전당포에 金모씨(25·전과2범·서울道峰區樊洞)가 스위스제 피아제 손목시계를 맡기러 왔다가 수상히여긴 감정사 朴모씨(32)가 이웃 K전당포에서 장물품표와 대조한 결과 장물로드러나 경찰에 신고했다.

金씨는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서울中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중 달아나 버렸다.

경찰은 달아난 金씨를 쫓는한편『친척형으로부터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어오라는 부탁을 받았을뿐 시계의 입수경위는 모른다』는 金씨의 진술에따라 이 친척형이라는 사람도 찾고있다.

한편 이고급시계는 지난 10일 상오 서울中區明洞1街6 로얄호텔 818호실에 투숙한 재일교포 金혜우씨(44·유기장업·日本神戶市中央局우동1)가 다이어목걸이(싯가1백50만원) 금팔찌(싯가1백50만원)등과 함께 잃어버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시계는 1리짜리 좁쌀만한 다이어가 9백개나박혀있는 초호화 시계로 감정가는 2천만원이지만 거래가격은 1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교포 金씨는 시계를 도난맞기 전날인 9일 친구2명과 함께 친선골프대회에참가하기위해 입국, 서울中區 小公洞B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뒤 10일 새벽2시께 로얄호텔에 투숙, 탁자위에 시계등을 놓고 잠을잤는데 상오 7시50분께 일어나보니 시계등이 없어졌더라는 것.

전국에 犯罪소탕령

치안본부 올들어 強力犯 7·8%증가

李海龜치안본부장은 30일 정사복 기동대원등 전경찰력을 우범지역에 투입, 강·절도범과 폭력배를 소탕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李본부장은 5월1일부터 조직상습범은 물론 예비음모 또는 미수범까지도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고 주요 강력미제 사건을위해 사건발생당시 참여했던 수사요원으로 전담반을 재구성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李본부장은 이와함께 전국의 금융기관 호텔, 아파트단지의 경비원을 점차청원경찰로 대체토록 유도, 자경체제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들어 지난3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강력범은 모두 1천8백76건으로 작년같은기간보다 8·7%가 증가했고 절도범은 3만1천9백37건으로 12·1%, 폭력범은 3만5천6백21건으로 27·9%가 증가한것으로 집계됐다.

불온油印物 인쇄 釜山大生 구속

【釜山】부산시경은30일반정부 유인물을 만들어 학교축제때 뿌리려던 釜山대행정학과4년정광모군(21·東萊區 長箭3洞 421)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聯合】

"背後는 없다"

40代남자 의문점 못찾아

경찰서 결론

乙支路의 남편독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中部경찰서는 30일 이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됐던 40대남자에 대한 수사결과 이남자가범인 金연주씨(39)로부터 빚을받아내기위해 자주만났을뿐이라는 사실을확인, 배후는 없는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경찰은 金씨의 남편독살배경에는 적어도 독살을 직접 교사하지않았다하더라도 독살동기를 유발한 남자가 있을것으로추정, 金씨주변의남자관계에 대한수사는계속하고있다.

엄마아빠 자주다퉈

독살된 廉씨장남 法院서진술

서울지검은 29일하오 남편을 독살한 金연주씨의장남(11)에 대해 법원에증인신문을 신청, 서울형사지법 魯元旭판사심리로 진술을 녹음청취했다.

金씨의 장남은 이날 신문에서『아버지가 죽겠다고 이야기하는것을 들은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병원에서 수혈하기직전 아빠가「나는 곧 죽을것같으니 엄마말을 잘들으라」고 얘기한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장남은 또『예전엔 엄마와 아빠의사이가 좋은것같았는데 최근엔 빚때문인지 자주 다퉜다』고 진술했다.

검찰의 이번 증인신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행해졌는데 형소법에 의하면『검사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한 증인이 공판때 전과 다른 진술을할 염려가 있을때는 검사는공판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도깨비 안의섭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거지收容所 9번 脫出한 한국版「빠삐용」

仁川 三榮院 봉고차운전사 林京男씨

35km 망망大海 외딴섬서 헤엄쳐 단속반도 두손들어… 구두닦기로

"運轉면허따기는 정말 脫出보다 어려웠죠"

林京男씨(36·仁川三榮院운전사)의 소년시절은 영화같다.

한창 어리광을 피울때인 6살때 어머니를여의고 계모에게쫓겨난 소년京男은 할수없이 걸인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14살때부터 3년동안 무려9번이나 걸인단속에걸려 서해의 외딴섬仙甘島(경기甕津郡大阜面)로 끌려갔으나 그때마다탈출했다. 탈출로는 험한바다길35㎞. 그래서 仁川사람들은 林씨를 한국의「빠삐용」이라고부른다.

林씨는6살때어머니가죽자 계모밑에서 자랐는데계모의학대가 심해 국민학교 2학년때인 10살때 쫓겨났다. 고향인 충남瑞山을 무작정떠난 林씨는 배를타고 仁川으로 왔다. 천애고아가된 林씨는 이때부터 걸인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의대문을두드리며 밥좀달라는 소리가 안나와 쓰레기통을뒤져 허기를 채웠다. 밤이면 仁川市花平洞철교밑에서 거적을 뒤집어쓰고 잤다.

또래의 거지가 찾아와 같이 자자며 말을 걸어어울려 다녔다. 비록 동냥은 했지만 무한히 자유스러웠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그의 자유는 끝났다. 거지단속반이 덮쳐 그를 부둣가로 끌고갔다. 아무말도없이 배를 태우고는 仁川항에서 35㎞나떨어진 仙甘島의 거지수용소로 보내버렸다. 14세때 일이다.

하루 3끼를주고 시키는 일만하면 되는 수용소생활은 바로 감옥이나 다를바가 없었다. 어린林씨의 마음엔 왜 내가 외딴섬에 갇혀 살아야하는지 그이유를 몰랐다.

섬을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2개월째 되던날 그는 바다를 응시하고섰다.『헤엄쳐 탈출하다 물살에밀려 죽은사람이 4명이나된다』는선배거지의말이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러나 무작정 갇혀살수는없다는 생각이 치솟으면서 그는 벼랑에서 몸을날려 바다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파도와 씨름했다.

한참 헤엄을친후 모래톱에 다다라고깃배 돛폭을덮고 정신없이 잤다. 그러나 깨어나보니 그곳은 육지가 아니라 또다른섬 大阜島였다. 그는 꾀를내었다.『아이스케이크장사를하다 거지로 몰려 수용소로왔는데 홀로계신 할머니가 걱정돼 탈출했다』고 호소, 한어부의 도움으로 仁川에 상륙했다.

다시는 거지짓을 안하겠다고 마음먹고 구두닦이가 됐다. 고달퍼도 돈을 번다는것은 또 다른 재미였다. 그러나 잠자리는 여전히 다리밑. 그러던 어느날 부슬비가와서 쉬고 있으려니 느닷없이 단속반이 들이닥쳤고 그는 다시 거지수용소 仙甘島로 끌려갔다. 한달만에 또 탈출했다. 이러기를 3년동안 9번이나 했다. 단속반도 그에게는 두손을 들었고 거지수용소에서는 그를「오리발」이라 불렀다. 헤엄을 잘쳐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9번째 탈출해서 그는 자유와 함께 인정을 찾았다. 水原행버스속에서 만난 金賢哲이란 고2년생이 자신을 따뜻이 대해주고 그것이 인연이 돼 그는 구두닦이를 하면서도 편지를 주고 받으며 우정을 나눴다. 사는 보람을 느꼈다. 한글은 만화책을 보며, 숫자는 나이롱뽕 화투판에서 배웠지만 주고받는 편지에는 구구절절 진실이 오갔다.

그런데 그고교생형이 어느날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더 컸다.

林씨는 덧없이 흐르는세월속에 맹장수술까지 받아몸이 이지러지자 지난72년 그는 그렇게도 저주하던 仁川의 거지수용소 三榮院을 찾아갔다. 이미 그의 마음은 성숙해 있었고 수용소도 이젠 외딴섬이 아니었다. 그는 수용소안에서 마음의 자유를 찾은 것이다.

원장 金榮起씨가 林씨의 마음을 누구보다 빨리 간파하고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는 자동차운전을 배우도록 했다. 타이탄트럭도 내줬다. 운전은 그런대로 할수있었으나 문제집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알수 없었다. 학과시험에 3번이나 떨어졌다. 그의 말을 빌면 수용소를 탈출하는것보다 몇배 어려웠다는것.

그는 끈질겼다. 작년 9월 4번째 시험에 합격했다. 또 하나의 탈출이 성공한 것이다.

그는 三榮院의 봉고차운전사가 됐다. 운전대에 앉은「빠삐용」의 얼굴엔 뿌듯한 성취감이 감돌았다.

그는 새삶을 찾은것이아니라 25년간에 걸쳐 투쟁해온 내면의 자유를 맛보고 있는것이다. 【仁川=崔成基기자】

◇외딴섬 거지수용소를 9번이나 탈출한 林京男씨。영화「빠삐용」의주인공처럼 그도 이제는 자유와 인정을찾아 안정된 삶을 누리고있다.

WALKIN COOLER, FREEZER, AIRCON, NEW & USED SALE
판매 수리 시설
GENERAL REFG. LTD. DEALER
PALMERS REFG. AIRCON CO.
750 OAKDALE RD. UNIT #10
Bus. 494-0512 Res. 493-9945 김봉균

아까시아 식당
AKASIA HOUSE (구·KYOTO)
금번 15년의 경력을 가진 일류요리사 김정수씨가 저희식당에서 교민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읍니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가족들, 벗들과 함께 즐기시고 장안의 최고의 맛을 음미하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요.
◆일식전문
□각종 덮밥
□각종 초밥
□우 동
◆한식
○비빔밥 ○불고기 ○갈비
○된장찌게 ○민어찌게
TAKE OUT SERVICE 간단한 모임 예약환영
□영업시간 화~금(낮12시~3시까지·오후5시~12시까지)
토 낮 5시~밤12시까지
일 낮 5시~밤12시까지
LAWLENCE
ORIOLE PLAZA 1067 Midland Ave
EGLINTON
주소 : 1067 MIDLAND AVE, SCARBORO.
전화 : 755-3010
곽(이)순자

축하합니다!
오월의 햇볕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추억을 담아드립니다.
KWI STUDIO
Photography and Graphic Design
77 VIRGINIA AVE.
TORONTO, ONT.
(416)425-8043
<오후6시이후>· 최귀암

라디오프로 '세월따라', 人氣는 '일단한번 들어주신 덕이죠.'

곧 美洲동포 위문공연떠나
밤무대出演줄여 가족에게 충실

인터뷰 코미디언 李朱一

코미디의 왕자 李朱一이 밤 무대와 TV뿐만이 아니라 라디오청취율까지 점령하고있다。지난해 재미동포 위문공연에서 해외동포이민 사상 최고의 인파를 끌어모은 李朱一은 동포들의 열화 같은 앙코르요청으로 올해도 5월6일부터 40여일 동안 美洲전역11개도시와 캐나다의 터론토공연을 서두르고 있다。해외 공연을 떠나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지난 2년동안 청취자들과 정들인 MBC라디오「세월따라 노래따라」(매일저녁 7시30분~9시) 프로와 잠시나마 헤어지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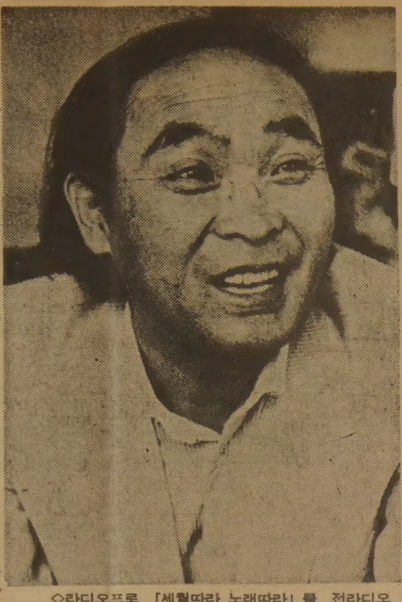
라디오의 7시 이후 시간대는 TV에 눌려 거의 사장되는 시간이다。李朱一이 81년 6월부터 진행을 맡기 시작한「세월따라 노래따라」도 그전까지는 청취율이높지않은 프로였다。그러나 李朱一이 진행을하면서부터 전 라디오프로중 청취율 1위의 인기프로로 올라서 스폰서들이 이 프로의 쟁탈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을 정도다。

『MBC라디오의 李鍾榮제작국장에게 처음「세월따라 노래따라」의 진행의뢰를받았을때는 라디오를,처음 한다는점에서 청취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겁이나서 망설였습니다。강권에 못이겨 시작한 프로가 청취율 1위가 될줄은 꿈에 몰랐습니다。모두다 일단한번 들어주신 덕분인것같습니다』—MBC·TV「웃으면 복이와요」의 스크립터인 尹正建씨가 대사를쓰고 高鍾斷프러듀서가 연출하는 李朱一의「세월따라노래따라」는 흘러간 옛가요와 함께 노래가 유행 했던 그시절의 풍물과 사회상황을 풍자적으로 엮으면서 때로는 드러매틱한 분위기까지 주고있다。李朱一은 요즘 어른들을 만나면 흔히 이런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한다。『중년층 이삼이 좋을만한 대중가요가 거의 없는데「세월따라 노래따라」에서 위안을 받고 있어요。그 시절의 노래를 들으면서 지나간추억에 젖기도한구요。미처못듣는 시간은 며느리나손자들이 녹음해줘 뛰어라도 꼭 들어요』—이렇게 청취자들의 아낌을받는 부담감때문에 해외공연을 가는 동안도 비울수 없는 자신의 마음과 스폰서들의 요청때문에 미리 녹음을 해놓느라 요즘 정신이 없다고 한다。실제로 이프로는 중년층 이상만이 아니라 젊은층이 옛가요를 재미있게 들으면서 이해하는데도 공헌을 하고 있다。李朱一이 80년1월TV에 데뷔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한것도 벌써 3년 4개월이 됐다。

그전까지는 지방쇼를 따라 다니면서 유랑생활을하느라고 부인과 자녀들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했다。그러나 이제 방송과 서울의 밤 무대 출연만으로도 너무바쁜 사나이가 됐다。

『제가 이렇게 되기 까지는 그동안 가족들이 참고 견디어준 덕택입니다。이제는 착실한 가장、아빠로서의 일에 더욱충실해서 가족들에게 보답하려고 합니다。거절할 수 없는 친분등으로 밤무대를 5곳이나 겹치기 출연을 하고 있는데、돈도 좋지만 제 시간도 좀 갖고 가정에서 충실하기 위해 이번 미국、캐나다공연을 갔다와서는 밤무대 출연도 대폭 줄일생각입니다』—李朱一은 2년만에 또 영화도 출연하고 있는데 東亞輸出에서 제작하는 李亨約감독의「얼굴이 아니고 마음입니다」라는코미디극이다。과거 영화가무엇인지도모르고 했으나 이제는 단순한코미디보다 인정극으로 연기를 해보이겠다고 한다。

【中大勇기자】



◇라디오프로 「세월따라 노래따라」를 전라디오 청취율 1위로 올려놓아 또 하나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李朱一。앞으로는 가정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서울집세 世界9번째 비싸
東京선 방1개 月貰2千弗

서울은 세계주요도시가운데 9번째로 집세가 비싼 도시로 나타났다。

스위스의 유니언·뱅크가 조사한 바에따르면 외국인용 아파트의경우▲일본의 東京이 세계에서 가장집세가 비싸 침실1개에 가구가 없는 아파트1가구에대한 월세가 평균2천1백달러(약1백62만원)나되며 ▲2위는 아부다비로 월1천8백60달러(약1백40만원)▲3위는 홍콩 1천5백30달러(약1백15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9위로 월8백달러(약60만원)로 나타났다。가장 집세가 싼곳은 남아연방의 요하네스버그로 월2백60달러(약20만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USA투데이紙】

비틀즈博物館 건립 英國정부 지원결정

영국정부는 보컬그룹 비틀즈가 영국문화에 끼친 커다란 공헌을 인정、리버풀의 비틀즈박물관건립에 4만파운드(약5천만원)의 재정지원계획을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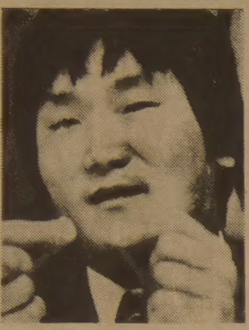
▲비틀즈박물관은 이들의 출신지인 리버풀에 매년 수만명의 관광객이 몰리자 이들 관광객을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7층짜리의 박물관건물에는 로크뮤직 클럽등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AP】

방글라데시의 病院 의사臥病에 문닫아

남부방글라데시의 한병원은 의사들이 아프기때문에 병원문을 닫고있다고발표。

이지역의 1백만주민을 상대로 의료활동을하고 있는 말룸가타·크리스천·메모리얼종합 병원당국은 지난주 성명을통해 의사들이 급성간염으로 들어누워 당분간 병원문을 닫는다고밝혔다。【UPI】

趙棋聖 東京프레스클럽 會見



◇東京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있는 趙治勳棋聖。

바둑으로 얻은 돈·명예 미안 끼니못잇는 사람도 많은데…

【東京=宋孝彬특파원】日本바둑계의 통일천하를 이룩한 趙治勳棋聖이 21일에 東京프레스클럽에서 내외기자회견을갖고 자신의 바둑관과 인생관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자리에모인 40여명의 보도진에게 『꼭 갖고 싶던 棋聖 타이틀을 막상따고보니 다음의방어전이 걱정이다。여기서 지면 그저 평범한인간이될뿐으로 명예도돈도 사라진다。그러니 열심히 싸워야하며따라서 행복보다는 고통이많지만 그것은 어느세계나 같을것이다』고 말했다。

큰 타이틀을 대부분 기타니(木谷實)문하의 선배들에게 탈취한 사실을들어 소감을 묻자 그는 의외로 담담히 대답했다。「동문이기때문에 다 친구일수는 없다。自民黨이라고해서 모두 단결해나가는게아니고 모두 총리대신이 되는것도 아니다。棋聖도 선거로 뽑는것이아닌이상 제각기 노력해나갈뿐이다。

그러면서도 프로기사에대한 사회의 예우에는 겸손한 자세。열심히 일해도 끼니를 못잇는 사람도 많은데 오락이랄수있는 바둑한판으로 많은 상금과 명예를 얻는것이 미안할때가 있다는 것이다。

장고형으로 초읽기에 몰리는 趙棋聖은 의외로 현재의 9시간 제한시간에 불평이 없다。『시간을 더 늘린다해서 보다 좋은 기보가 나올것같지는 않다』는 것。

끝으로 국적문제에 언급한 그는『나로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요한 나라다。아내는 일본인이며 따라서 아이들은 하나의 세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간女性

구독신청은 533-2361

땅끝에서 오다

金成一 作 宋龍 畵 <47>

어둠속의 證人③

『그 외에 다른 가능성들도 있습니다。그 프로젝트가 워낙 큰것이 되어서 전 세계의 굵직한 업체들은 거의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중에서도 어떤 음모가 있었을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접안이 통째로 사건 덩어리로군』

형사는 준호가 설명한 것을 정리하여 우선 이 세원의 실종신고를 접수하였다。

완강한 얼굴의 형사가 일어서며 준호에게 말했다。

『자、당신의 말대로 아파트에 다시 한번 가 봅시다。당신의 느낌으로는 서울과 동경 사이의 전화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저는 아까 그 응접실에서 그 어떤 암시를 발견한것 같았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우선 현장에 가보면 무엇인가 나올 것만 같았다。어쩌다가 순식간에 용의자가 되어버린 문 영실과 임 준호였다。깊은 곳으로 추락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그는 다시 미하이 스타네스쿠의 작품을 생각하고 있었다。출구를 찾은 사람의 앞에 기다리고 있던 낭떠러지。그리고 발밑을 나는 새들……문 영실과 임 준호는 지금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에게는 뭔가 빛이 보이고 있었다。그는 비행기에서 읽었던 성경의 한 구절을 기억해내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준호와 두 사람의 형사는 다시 304호 앞에 서 있었다。완강한 얼굴의 형사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도어를 열었다。

(아까는 이 문 앞에서 영실을 만난다는 흥분에 떨고 있었지。그러나 이제는 죽음의 적막한 그림자만이 저 어둠 속에 숨어 있군)

형사가 스위치를 올렸는지 형광등이 켜지고 있었다。그들은 함께 응접실로 올라섰다。

응접실로 올라서면서부터 준호는 그 영감의 실마리를 따라 차근차근히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분명히 있었다。반드시 있을 것이었다。정돈되어 있지않은 응접실。먼지 쌓인 장식장、책·마스코트·달력…애처롭게도 문영실의 응접실에는 아직 지난해 12월의 달력이 걸려 있었다。

준호의 행동을 주시하며 한쪽 구석에 팔짱을 낀채 서있던 완강한 얼굴의 형사가 입을 열었다。

『임준호씨』

『네?』

『당신이 느꼈었다는 두개의 통화사이의 차이는…』

준호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오랜 수사관생활로 틀잡혀진 관록이 그에게서 풍겨나오고 있었다。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당신은 지금 통화의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읍니다。아시다시피 통화의 내용이란 보이는 것도、만져지는 것도없이 오직 소리뿐이지요。그러므로 당신의 두개의 통화사이에 존재하는 소리의 차이를 찾아내면 될것입니다』

준호의 눈이 환하게 열리고 있었다。그는 마침내 알아냈다는 듯이 손뼉을 쳤다。

『그렇습니다。그것은 소리의 차이였읍니다』

張吉山

黃晳暎 作 崔然石 畵 <1730>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90)

무계(巫契)의 모임이 모두 파하자 사선골은 갑자기 저승처럼 적막강산이 되었다。천성달과 환희는 평산 가는 이들과 토산거쳐서 삭녕으로 가겠다고 동행하여 먼저 떠났고 원향과 여환 두 사람만이 남았던 것이다。이미 용연의 물로 가약이 맺어졌다고는 하나 둘만 남게되니 뭐라고 부부의 행세를 할지 난감하였다。여환은 쓰다 달다 말이없이 신당 방에 앉아 있었고、원향이는 물을 긷는다、마당을 쓴다、마루를 닦는다、굿판의 뒤처리를 하느라고 부산하게 우왕좌왕 하였다。여환과 눈이 마주치자 원향이는 그저 배시시 웃었다。

『시장 하시지요? 내얼른 중화지어 올릴게요』

여환은 이러한 여염의 부부가 하는 짓거리가 천지 조화속임을 느꼈다。이렇게 살면서 살도 섞게 되고 아이도 생겨나고 늙어가고 죽어가고 세상의 영고성쇠를 만들게 되는것이렷다。그러나 몸이 변하지 않았으니 어찌 격이 변할 수가 있겠느냐。

원향과 마주 겸상하여 중화를 드는데 여환은 밥을 먹다말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뭐요…뭐 묻었나요?』

『아니다。네가 내 아낙인 것이 하도 신기하여 그런다』

『그러면…』

원향이가 머뭇거리며 말하였다。

『하게로 하셔야지요。우리는 부부가 되었으니』

『이 길로 나를 따라서 김화 들러 양주로 나가겠느냐』

원향이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어요。부부 일심동체래 하나 비록 떨어져 있어도 저는 당신의 아낙이고 당신은 제 남편이십니다。이제 우리 부부가 미륵의 세상을 이루려 하면서 어찌 육근의 탐욕이며、한시인들 게을리 하겠어요。우선 저는 구월산에서 오박수 아저씨와 함께 계를 짜는 일을 할것이니 당신은 양주에서 미륵대도를 이루셔야 합니다』

여환은 가라앉은 목소리가 되어 물었다。

『그러면、우리는 아예 살도 섞지않고 정이나 그리움도 없이 애렇듯 돌멩이처럼 산단말이냐?』

『저승에 가면 이승의모든 연은 하나같이 물거품이 된다구 합니다。심지어는 모친을 찾아 저승에 찾아간 효자가 천신만고 끝에 그어미를 잡고 반겨울어도 모른척했다지요。새로 연을 맺고 새로이 부부가 되며 다른 삶을 살아 간답니다。우리 거기가서 다시 성혼해요。먼저 전생에는 오누이、이번 전생에는 걸만 부부、다음 후생에 속까지 부부、그리고 아주 먼 후생에는 연리지 한뿌리의 한몸이 되어 없어지지 말아요』

여환은 빙긋 웃었다。

『우리가 꼭 마른 나무등걸로 섰는 음양의 장승 같구나』

『그렇잖아요』

원향이 눈시울이 그렁그렁하여 여환의 손에 수저를 쥐어 주었다。

제2회 한국일보사배 어린이 야구 대회

□ 때 : 1983년 7월2일(토) 낮12시
1983년 7월3일(일) 아침9시
□ 곳 : CENTENNIL PARK 야구장
□종목 : ①어린이부~만12세 미만 (83년1월1일 현재)
②소 년 부~만14세 미만 (83년1월1일 현재)
□참가비 : 팀당 $50

〈소년부〉경기 신설!

◇심판및 진행위원장 : 박재선씨
◇감독자회의 : 6월24일(금) 오후7시(한국일보 본사)
◇연 락 처 : 한국일보사 송광호(533-2361)
브랜돈스포츠사 이건영(598-3732)
박재선(755-6424)

※공은 소프트볼 사용(11인치)
※투구는 언더드로우
※OASA(온타리오 아마추어 소프트볼협회) 규칙을 적용하되 자세한 내용은 감독자 회의에서 결정할 것임.

주최 토론토 한국일보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_.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컴퓨터 식자 서비스
컴퓨터 식자기를 이용하여
책을 만드실 분 문의 바랍니다. ☎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토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1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회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푸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분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보광한약방 〈충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하르빈한약상사
전 중국한의대교수. 전 중국의대졸업.
하르빈한의대졸업. 한의학과 침구연구 20년.
한약으로 암치료연구 20년. (중국어, 일어, 한국어 능통).
각종한약 중국에서 직수입 도산매전문. 20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한약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저 하옵니다.
643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춘봉.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아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주말헬퍼구함.
경험자우대. 몬트리얼지역.
"희의 집" 전화 : 1-(514)-861-6128.

도넛숍에서 밤일 풀타임, 파타임
일하실 여자분 구함.
398 Church St.(at Carlton) 전화 : 977-0303

영어가르쳐 주실분 구함.
전화 : 535-6517. Mr. 권.

급히 가게매니저 구함
월수입 $4,000이상 보장
전화 : 1-560-6400 해밀톤

웨이트레스 급구.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 757-6334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일 또는 매주 금요일 현금지불
전화 : 654-6628 Mr. Tommy

〈무역담당 직원구함〉
자격 : (1)대학졸업자 (2)무역경험자 (3)영어능통자 (4)남자 또는 여자분
Start 년봉 : $25,000
전화 : 677-4749(제니) Jenny

Fast Food 주방헬퍼와 파타임 카운터학생 구함
(경험자 원함)
전화 : 오후6시이후 (R)438-0403, (B)483-0921)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주말에 지불함.
전화 : 534-5903 Mr. Peter

주말 Store 헬퍼 구함. (Etobicoke지역)
전화 : 231-7944 오전중 연락요망

입주하셔서 아이들 돌봐주실분 구함.
오후5시 이후 연락요망
전화 : 276-6911 Mrs. 윤

입주하셔서 남자아이 둘(5살, 9살) 돌봐주실 아주머니 구합니다. 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6-6911 (오후5시이후 연락요망)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
영어에 능통한 자.
전화 : 221-9051.

입주하셔서 17개월간 2살된 남자아이 돌봐
주실 분과 약간의 가정일 돌봐 주실분
전화 : 270-1981

가발 염색및 가발 만드실분 구함.
경험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하나 꼭 필요치는 않음.
풀타임 또는 파타임으로 다운타운 지역임.
Training을 받기 위해서는 꼭 영어를
말할 수 있어야하고 이해하여야만 함.
문의 : 977-1122 Randy

입주하셔서 가족같이 지내시며
애들(3세, 5세 여아) 돌봐주실 분
월 $500 전화 : 741-9575

경험이 많은 캐쉬어와 헬퍼 구함.
68 Yonge St. LULU 카페

헬퍼구함. 청소하실 분.
Weston 지역.
전화 : 743-2373(오후5~8시사이 연락요망)

과일 채소가게에서 일하실 결혼하신 분.
직접면담요망.
주소 : 383 Roncesvalles Ave. Elliot's Food Market.

재봉사 구함.
숙녀복및 양복 수선 할 수 있고,
꼭 경험이 있어야함.
피스 워크
좋은 베니피트 보장
★희망자는 IRVIN POSLUNS을 면담.
DYLEX. 3RD. FLOOR
637 LAKESHORE BLVD. WEST.
전화 : 591-7054

파트타임 헬퍼 구함.
Partime helper wanted at Country Style Donut Shop.
Located at Keel and Just South of Finch.
Common english communication needed.
Anyone who is interested please
Call 630-9413 ask for Mr. Yun

매 매

교양인의 정서
오강남저 "길벗들의 대화" $10.00
한국일보 총무국 전화 : 533-2361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전 30권)
1. 세계최고의 권위있는 백과사전(215년의 역사와 전통)지사용
2. 국민학생부터 중·고등·대학·전문기술자·대학교수까
★"Reading과 Writing에 관한 중요성을 자녀들이
인식하도록 가능하면 일찍부터 지도하는 것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열쇠입니다."
★연락처 : (416)469-1350 또는 463-7423 LEE S.W.

▲야채및 과일가게
주매상 $6,000이상. 리스 5+5+5년.
계속 발전되고 있는 동네안의 깨끗한 Plaza내에 위치.
가정형편상 급매코저함. 유경험자나 대가족을 가지신
분은 꼭 한번 보십시요. 아스킹 $59,900
▲Fast Food
Bloor & Yonge의 바쁜 Shopping Center안에 있음. 주매상 $4,500. 리스 3+5년. 짧은 시간. 같은 주인이 7년간 운영. 본국으로 돌아감. 아스킹 $129,000
채준성(David Chae)(B)497-8900 New line Center
Sincere Realty Inc.

Dry Cleaners(Depot)매매.
주매상$850. Rent$350. Asking$23,000.
전화 : 531-5664.

Tuck-Shop Variety Store 급매
꼭 관심있는 분만 내방을 바람.
면담시간 : 9am~11am
영업시간 : 8:30~9까지 하고 있음.
장소 : Dundas + Parliament 근방
39 Belshaw Place Tor.

장비매매. 새커피머신(그라인더) $600. 새초코렛머신 $400.
새 Meat Slider $1,300. 새써브마린테이블 $2,000.
커피테이블및 의자등등. 전화 : 465-6885(Mr.김)

Town Houese 매매(좋은 가격) 매매.
Jane & Sheppard지역
전화 : 743-3377 Mr. Eastman

가게 달린 주택 매매.
좋은 위치, 좋은 전망.
전화 : 653-1958 Mr. Viss 영어로 문의바람.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전화 : 487-0108

오타와 중심가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타상업 관계로 급매. 주매상 : $7,000
렌트 : $650 전화 : 1-613-238-3837

가게 사실분 또는 매니저 구함.
해밀톤 지역서 성업중.
전화 : 1-560-6400 Mr. 정

도우넛 숍 장비매매.
Half Price Sale.
전화 : 884-5573. Mr. 강.

집과 가게건물 두채를 매매, 혹은 리스코저 함.
매매 19만불, 7만 Down.
전화 : 291-6625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5,000.
렌트 : $700. 리스: 6년+10년 옵션
전화 : 1-388-4825(해밀톤)

Daily Case와 Cooler & 야채다이 팝니다.
전화 : 844-2922

Convenience Store 매매.
직접 내방 요망.
1801 Lawrence Ave. E. Scarboro.

PICK-UP 세탁소 매매. Asking: $6,000
Apt. Rent 포함 $400. 리스 8년
전화 : 534-5904 Mr. Peter

도나스 숍 매매. 주 $5,500
Bathurst & 580 Queen St. W.
전화 : 368-2100

새로운 각종 비데오게임 매매.
이익은 50%씩 나눔. 좋은 Terms.
전화 : 247-3713

블로아에 위치한 스토아 매매. 비데오게임 라이센스.
Post Office 로타리오 머쉰 연수입 7만2천이상
Asking Price : 9만5천+Stock 전화 : 588-1494

이전관계로 좋은 조건으로 급매.
3 Bed Room. 콘도미니움 타운하우스.
전화 : 493-0615 Mrs. 안(6시반이후)

도나스가게 매매.
주매상 $3,600. 아스킹 $145,000(St. Clair & Midland)
전화 : 421-6964. John or Peter.

(급매) 서쪽 끝에 잘 관리된 현대감각의 천과 커텐가게. 필요에 따라 배울때까지 보조함.
Mr. or Mrs. Shine 전화 : 225-6999

버라이어티스토아 건물 포함 매매
주매상 : $4,000 Hamilton
전화 : 1-529-0018

집과 가게딸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4 Bed Room. Eglington & Jane. Asking 13만9천불.
전화 : 767-5080 Mr.리

햄버거 레스트랑 매매.
성업중, 리스 좋음. Downtown(시내중심가)
전화 : 461-2404

Oshawa Downtown Shopping Mall안에 있음. Shoe Retail Shop. 4월 1일부터 Open했음. 매매.
관심있으신분은 291-8367로 전화연락바람(아침10시 부터 오후3시)

구 혼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아파트써부렛렌트. 온타리오싸이언스부근. 현재 월$605.
3 Bed Room(8월이후$650). 5월15일부터 입주가능.
전화 :424-1993. 낮 536-2155.

교통이 편한 Luxury 아파트 써브렛.
Large 1 Bed Room(언제든지 입주가능함)
191 Sherbourne St. 전화 : 368-8138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차차,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렌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옹)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분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248-2437(R)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피아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88-244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휘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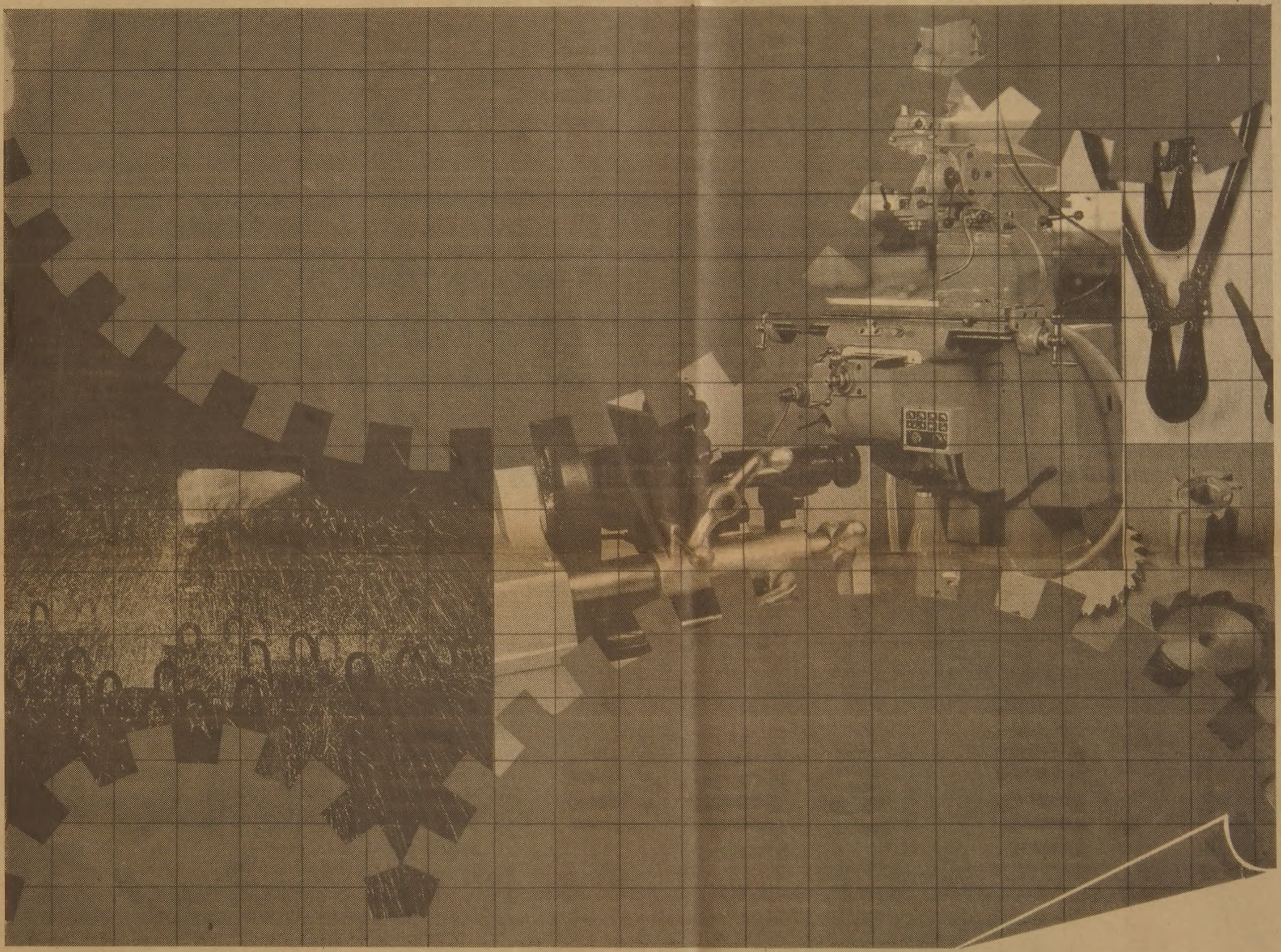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소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 김

'83 캐나다
기계류 박람회 참가

'83 National Industrial Production & Machine Tool Show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한 한국의 기계공업
발전상을 직접 보실 유일한 기회 !
관심있는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환영 합니다.

ㅁ기 간 : 1983. 5, 9.~ 5, 13.(5 일간)
ㅁ장 소 : 토론토 Coliseum Complex Exhibition Place(CNE)
Booth U 10-18, V 9-17 Industrial Bldg.
ㅁ참가업체 : 기아기공 광주남선선반 대한중기 통일산업
기흥기계 동성개발 세야실업 한국공작기계

토론토무역관

Suite 2802, 20 Queen St. W. TORONTO ☎ : (416) 977-8784